

지리교육과정에서의 건축 관련 학습주제에 대한 성찰과 과제: 건축과 지리를 융합한 새로운 지리학습 주제 개발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중심으로*

심승희**

Rethinking Architecture-Related Learning Themes in Geography Education: the Necessity and Potential of New Geography Learning Themes Integrating Architecture and Geography*

Seung Hee Shim**

요약 : 본 연구는 건축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관심과 건축이 공공 삶에 미치는 제도적 영향력 강화 그리고 최근 지리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른 진로 비전의 강조와 새로운 지리학습 주제 개발의 필요성에 부응하여 건축학의 성과를 융합하여 지리교육의 지평을 확장하려는 배경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지리교육과정에서 건축 관련 학습주제 및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왔는지 성찰하고, 건축과 지리를 융합한 새로운 지리학습 주제 개발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 지리교육과정에서 건축 관련 전통적 학습 주제는 크게 3가지(자연환경을 반영한 전통가옥, 종교경관으로서의 사원 건축, 도시 내부구조와 경관으로서의 건축물)이다. 최근에는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질 높은 정주환경 조성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건축적 실천, 이 두 주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건축 관련 지리학습 내용이 풍부해지고 있다. 이는 바람직한 장소 만들기라는 실천적 역량 함양을 중시하는 지리교육 패러다임의 전환과 맞물려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건축과의 융합을 통한 지리학습 주제 개발 영역으로, 전통적 지리학습 주제의 현대화 및 지속가능성 교육 강화, 기술 발달에 따른 건축공간과 생활의 변화, 건축 설계 관련 기초 개념 학습을 통해 정주환경의 질을 개선하는 능동적 시민 되기를 제안하였다.

주요어 : 건축, 건축 관련 지리학습 주제, 지리교육

Abstract : This study explores the integration of architecture into geography education in response to rising public interest, the expanding institutional role of architecture in public life, and recent curricular reforms in Korea. A review of the curriculum shows that traditional architecture-related themes -especially vernacular houses — remain constrained by environmental determinism and residual culture-oriented. Recent revisions, however, have introduced themes of sustainable practices and the creation of high-quality residential environments, reflecting a paradigm shift toward practical competencies for desirable place-making. To advance this shift, the study proposes three thematic directions: modernizing traditional themes with sustainability education, examining changes in architecture and everyday life through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fostering active citizenship through learning the basic concepts of architectural design.

Key Words : Architecture, Architecture-related geography learning themes, Geography education

*이 연구는 2022학년도 서울대학교 신입교수 연구정착금으로 지원되는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과제번호 700-20220140).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geossh@snu.ac.kr)

I.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지리와 건축의 본래적 친연성에서 출발하고 있다. 국내에서 대중적으로 알려진 건축학자가 “각기 다른 기후는 각기 다른 ‘환경적 제약’을 만든다. 이런 환경의 제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친 인간 지능의 노력이 ‘건축물’이라는 결과물로 나타난다”(유현준, 2020:7)고 말한 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인공물인 건축은 그 건축이 자리한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생산된 것으로, 건축은 인간과 환경의 관계를 탐구하는 지리학과 본래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맺어 왔다. 건축학계에서도 지역 고유의 자연환경에서 생성된 사회적·문화적·역사적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건축의 지역성이 발전해 왔다는 점에 주목해 왔으며(김세영, 2013), 건축의 ‘지리적 전환’¹⁾을 주장할 정도로 지리적 개념과 방법론에 관심을 기울인다. 또한 지리학에서의 건축 연구의 흐름을 정리한 초창기 연구인 Ford의 논문(1984:7)은 “지리학자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건축에 대한 연구를 어떻게 해왔는지 살피고, 지리학이 이 오랜 전통적 관심을 지속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를 시작했다. Ford의 언급처럼 지리학에서는 건축(architecture), 건물(building), 건조환경(built environment) 같은 다양한 명명과 접근방식을 통해 건축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왔을뿐 아니라, 건축학자들이 생산하는 다양한 도시 및 지역 연구물에도 관심을 가져왔다.

지리학 내에서 건축에 특히 관심을 가져온 하위 분야는 문화지리학이다. 문화지리학자 Horton and Kraftl의 문화지리학 개론서 *Cultural Geographies: An Introduction* (2014)은 문화지리학의 연구성과를 폭넓게 파악하기 위해 다섯 가지 핵심 주제²⁾를 선정해 정리했는데, 문화지리학의 오랜 연구 대상이자 주요 개념인 ‘경관’을 제치고 첫 번째 장(章)을 ‘건축 지리(architectural geographies)’로 구성했다. 그리고 문화지리학이 건축물을 연구해야 하는 이유로 건축적 실천이 장소 만들기의 한 형태라는 점과 건축물이 우리 삶의 상당 부분을 보내는 공간이라는 점 두 가지를 들었다.

지리교육의 영역에서도 전통적으로 건축이 지리교육 학습내용에 상당한 비중으로 포함되어 왔다. 그러나 건축이 지리교육 안에서 독자적 연구주제로 다뤄진 시도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거의 없거나 미미하다. 이런 현상의 배경은 그동안 건축이 국내의 지리교육과정에서 독자적 학습주제로 편제된 사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연구자는 이제 지리교육에서도 ‘건축’ 관련 학습주제에 대한 면밀한 성찰과 새로운 시도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의 배경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사회적·제도적 변화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건축에 대한 사회적·대중적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³⁾ 그에 따라 건축가들의 활약이 개별 건축물의 범위를 넘어, 도시 설계 및 계획뿐 아니라 인간·환경론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적·제도적인 면에서도 2007년 “건축문화를 진흥하고 국민의 삶과 복리 향상”을 위하여 「건축기본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 ‘제3조’에서는 건축의 영역을 ‘건축물’뿐 아니라 ‘공간환경’(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 공공공간, 경관)까지 포함하면서 건축 영역을 확장하고 재정립하였다(국가법령정보센터). 또한 이 법의 제정 의의는 건축이 땅에 고정되어 있어 공공재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건축의 공공적 가치 구현’을 지향함으로써, 이익과 편리함을 만족시키는 사적 차원에서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공적 차원으로서의 확장을 의미한다(김성홍, 2020:127, 156).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제도적으로는 국토교통부 산하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2007년 부설연구소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신설하였을뿐 아니라 2020년에는 ‘건축공간연구원(Architecture & Urban Research Institute, AURI)’⁴⁾이란 독립연구기관으로 승격해 국토계획 및 관리에 있어서 건축 영역의 비중이 높아졌다. 이러한 사회적·제도적 변화와 관련된 공간 변화를 지리교육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같은 건축의 사회적 관심과 영향력에 힘입어 유현준을 비롯한 많은 건축학자들이 출판한 공간이나 도시에 관한 책들⁵⁾이 대중적으로 널리 읽히고 있을뿐 아니라, 연구자 같은 지리 전공자들도 전공 관련 문헌으로 관심 갖고 읽게 된다. 그런데 이같은 인기 건축 서적을 읽다보면, 오래전부터 학교 지리에서 가르쳐온 인간과 환경의 관계에 대한 기초 지식이 건축학자들에 의해 ‘새롭거나 통찰력 있는’ 지식처럼 대중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상을 발견하게 된다.⁶⁾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이에 대한 답은 여러 측면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학교 교과서는 시험을 치러야 하는 골치아픈 대상으로 받아들여지는 반면, 대중 교양서는 자발적 선택으로 읽

는 책이라는 점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연구자가 주목하는 또 하나의 예상 답변은 다음과 같다. 건축가들은 특정 기후환경에 속한 땅 위에 직접 건물을 설계하고 지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건물을 설계하고 짓고 또 그 건물 설계를 의뢰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의 피드백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인간과 환경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며 생생한 지식이 생산된다. 이같은 지식의 특성은 대중들의 관심과 매력을 끌 수밖에 없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리 교과서에서 다루은 인간-환경 관계 같은 큰 스케일의 담론까지도 후광효과에 의해 더 매력적이고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건축학에서 생산해낸 이같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식을 지리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포섭하는 것이 지리교육의 지평을 넓히고 풍부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지리교육에서의 건축 연구의 필요성을 느낀 두 번째 배경은 최근 국내 지리교육과정의 급격한 변화 때문이다. 최근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데,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및 고교 진로선택 과목이 도입되면서부터 문·이과 학생들에게 매력적인 진로 비전을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여기에 2022 교과학점제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로 일반선택, 진로선택 과목에 융합선택 과목까지 추가되어 지리과목 수가 늘어났을 뿐 아니라 과목 선택에서 진로 요소가 중요해짐에 따라 그에 부응할 수 있는 지리학습 주제 개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22 교육과정에서 건축 관련 학습주제가 이전 교육과정에 비해 눈에 띄는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새롭게 시도된 건축 관련 학습주제가 의미있는 지리교육적 성과를 내며 발전하기 위해서는 건축 관련 지리학습 주제 개발에 관한 연구가 적극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지리교육과정에서 건축 관련 학습 주제 및 내용이 그동안 어떻게 다뤄져 왔는지를 성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축과 지리를 융합한 새로운 지리학습 주제 개발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2. 본 연구에서의 ‘건축’ 용어 정의

본 연구에서는 핵심어인 ‘건축(architecture)’이란 용어를 어떻게 정의하였는지 먼저 설명하고 나서 본론을 시작

하고자 한다. 지리학에서 건축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사우어학파의 촌락 문화경관 연구에서는 ‘건축’이란 용어보다 ‘가옥(house)’ 같은 개별 건물(building)을 지칭하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했으며, 전통 촌락이 아닌 근대 도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건축’이란 용어보다 포괄적이고 집합적인 ‘건조환경(built environment)’이란 용어를 더 많이 사용했다(Warf, 2010:107). 그런데 건물이나 건조환경이란 용어는 각각 ‘물리적으로 세워진 개별 구조물’, ‘인간이 만든 인공적 공간의 집합체’라는 의미로서, 모두 물리적 구조물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반면 ‘건축(architecture)’이라는 용어는 물리적 구조물 자체만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기술, 철학, 예술 등까지 모두 포괄하는 추상적인 용어이다. 예를 들어 *Encyclopaedia Britannica*에서는 건축을 “단순한 시공(施工)과 구별되는 설계와 구축의 예술과 기술”이라고 정의한다.⁷⁾ 또한 문화지리학자 Kraftl(2010:408)이 개별 건물로 구성된 건축을 조정, 도시설계, 도시계획 같은 다른 종류의 건축 공간(built space)과 구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선행연구들이 보여주었다고 지적한 바와 같이, 건축은 도시설계, 도시계획과 구분하기 어려울만큼 연속적인 스펙트럼 상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 출판된 「건축학 개론」(이범재·배시화, 2021)의 내용 구성을 보면 건축뿐 아니라 조경과 도시(설계 및 계획)의 범주까지 포함되어 있고, 미국의 건축학 교육 인증기관(National Architectural Accrediting Board)에서도 건축학 교육과정에 ‘건물 스케일에서 도시 스케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케일의 건조환경을 설계하는 과정’이 포함된다고 밝히고 있다.⁸⁾ 이처럼 건축은 개별 건물 스케일뿐 아니라 조경이나 도시 설계까지 포괄하는 매우 광범위한 영역이기도 하다. 그래서 Kraftl(2010:408)은 건축을 도시계획이나 설계 등과 구분하지 않고 ‘건축 지리’의 영역 안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Kraftl(2010)이 정의한 ‘건축 지리학’처럼, ‘건축’을 공간적 스케일 면에서는 개별 건물의 범위를 넘어 도시설계나 도시계획 등 오늘날 건축학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공간 스케일에서의 건축 관련 실천을 모두 포괄한다고 정의한다. 또한 이같은 건축 관련 실천의 범주에는 구체적인 물리적 구조물 자체뿐 아니라 그와 관련된 기술, 철학, 예술 등을 모두 포괄한다고 정의한다. 이처럼 ‘건축’을 포괄적으로 정의함으로써, 현재 사회적·학

문적으로 활발하게 기여하고 있는 건축 영역의 풍부한 성과를 지리교육의 혁신과 발전에 활용하고자 한다.

II. 지리교육과정에서의 건축 관련 학습주제에 대한 성찰

1. 2015 지리교육과정 및 교과서에서의 건축 관련 학습내용 분석

2015 지리교육과정에서 건축 관련 학습내용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2015 지리교육과정(교육부, 2015)에서 ‘건축’을 키워드로 검색해보았다. 그 결과 ‘건축’이란 용어가 ‘과목의 성격’, ‘성취기준’, ‘성취기준 해설’, ‘성취기준 적용시 고려사항’, ‘교수·학습 및 평가’ 항목에 명시되어 있는 과목은 고교 진로선택과목으로 신설된 ‘여행지리’ 한 과목뿐으로, 표 1과 같이 ‘성취기준’ 수준에서 ‘건축’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교육과정이 아닌 교과서 수준에서는 건축이 학습주제나 학습요소로 활용되는 사례가 꽤 많다.⁹⁾ 교육과정 수준에서는 ‘건축’이라는 용어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자연환경과 인간생활’이라는 전통적 대주제¹⁰⁾의 하위 주제인 ‘환경의 영향을 받는 의식주 생활 모습’에서 건축(주로 가옥)이 학습요소로 많이 포함되었듯이, 교과서 수준에서는 여러 지리학습 주제에서 건축이 하위 학습주제나 학습요소로 제시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 수준에서는 건축 관련 학습내용이 과목 및 단원별로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지 그 경향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가장 과목 수가 많고 심화된 내용을 다루는 고등학교 지리 과목 「통합사회」, 「한국지리」, 「세계지리」, 「여행지리」 교과서 1종씩을 선택해 건축 관련 학습내용이 어떤 단원에서 어떤 학습주제와 학습요소의 형태로 포함되어 있는지 표로 정리했다(표 2).¹¹⁾

교과서 수준에서 건축 관련 학습요소가 가장 많이 다뤄진 학습 주제는 지리교육의 전통적 대주제인 ‘자연환경

과 인간생활’의 하위 학습주제인 ‘자연환경(특히 기후)’을 반영한 전통가옥의 특징’이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2015 교육과정에서 지역지리 체제로 구성된 「세계지리」 과목이 건축 관련 학습요소를 가장 많은 대단원(6개)에서 다룬 과목이 되었다. 또한 ‘자연환경(특히 기후)’을 반영한 전통가옥의 특징’ 학습주제는 「세계지리」 과목 뿐만 아니라, 「통합사회」, 「여행지리」, 「한국지리」 과목에서도 다뤄지고 있다. 덧붙여 ‘기후’만큼은 아니지만 표 2의 「통합사회」 사례처럼 자연환경의 한 요소인 ‘지진’에 대응하기 위한 전통 및 현대적 건축 양식에 대한 학습요소도 그동안 지리교육과정에 지속적으로 포함되어 왔다.

그 다음으로 건축 관련 학습요소가 많이 다뤄진 학습주제는 ‘종교 경관으로서의 사원 건축’이다. 이 주제가 많이 다뤄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전통적 지리학습 주제로 초·중·고에 걸쳐 학습되는 주제가 ‘세계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인데, 이중 ‘인문환경에 따른 세계의 주요 지역’ 학습에서 기본적으로 다루는 학습요소가 ‘종교에 따른 문화권 구분’이고, 이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종교별 사원 건축 양식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학습주제 역시 「통합사회」, 「세계지리」, 「여행지리」 과목에서 공통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이처럼 종교 건축이 세계 문화권의 구분 지표로 다뤄지다 보니, 「한국지리」에서는 관련 학습주제가 포함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그동안 지리교육과정에서 ‘건축’은 보통 세계적 스케일에서의 자연환경(엄밀히는 자연환경의 영향을 반영한 인문환경)과 인문환경의 특징을 몇 개의 자연 지역 및 문화지역으로 구분해 학습하는 주요 내용요소로 활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문화지역은 인문적 특성에 토대한 지리적 단위로 정의되는데, 문화지역을 구분하는 인문적 특성으로 보통 언어, 종교, 경제, 사회조직, 주거형태라는 문화요소를 활용(Jordan et al., 1997:7-8)하는 전통이 지리교육의 학습내용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건축 관련 학습요소가 많이 다뤄진 학습주제는 ‘도시 내부구조와 도시경관’ 관련 주제로, ‘도시 내부

표 1. 2015 지리교육과정에서 ‘건축’이 명시된 사례

과목	단원명	성취기준
여행지리	(3) 다채로운 문화를 찾아가는 여행	[12여지03-02] 종교, 건축 , 음식, 예술 등 다양한 문화로 널리 알려진 지역을 사례로 각 문화의 형성 배경과 의미를 이해하고 관광적 매력을 끄는 이유를 탐구한다.

출처 : 교육부, 2015.

표 2. 2015 고교 지리 과목별 교과서에서의 '건축' 관련 학습내용

과목	대단원명	중단원명	학습주제	학습요소	
통합 사회*	I. 인간, 사회, 환경 과 행복	3. 행복한 삶을 실현 하기 위한 조건	질 높은 정주환경	동네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면사 무소 공간 설계	
	II. 자연환경과 인간	1. 자연환경과 인간 생활	기후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	기후 특성을 반영한 전통 가옥 및 현대 건축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한 건축 설계	
		2. 자연에 대한 다양 한 관점	생태 중심주의의 의미와 특징	생태공동체 마을의 태양열 주택 설계 및 자연정화를 위한 하수 설계	
	III. 문화와 다양성	1. 다양한 문화권의 특징	자연환경의 영향으로 형성된 문화권 종교의 영향으로 형성된 문화권	전통가옥의 재료로 구분한 문화권 종교별 특징적인 사원 양식	
			2. 문화 변동과 전통 문화	문화 융합에 의한 문화 변동 전통문화의 현대적 해석	불교 사찰 양식과 성공회 성당 양식의 융합 온돌과 마루 양식이 현대적으로 계승된 아 파트 건축
		한국 지리**	III. 기후 환경과 인간 생활	2. 기후와 주민 생활	기온과 주민 생활 강수와 주민 생활 바람과 주민 생활
II. 세계의 자연환경 과 인간생활 ¹²⁾	2. 열대 기후 환경			열대 우림 기후의 특징과 주민 생활 사바나 기후의 특징과 주민 생활 열대 계절풍 기후의 특징과 주민 생활	열대우림 기후 전통가옥의 특징 사바나 기후 전통가옥의 특징 열대 계절풍 기후 전통가옥의 특징
	3. 온대 기후 환경			서안해양성 기후의 특징과 주민 생활 지중해성 기후의 특징과 주민 생활	서안해양성 기후 전통가옥의 특징 지중해성 기후 전통가옥의 특징
	세계 지리***	III. 세계의 인문 환경 과 인문 경관	1. 세계 주요 종교의 전파와 종교 경관	세계 주요 종교의 성지와 경관	종교별 특징에 따른 사원 건축 양식 및 입 지 특성
IV. 몬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1. 자연환경에 적응 한 생활 모습	몬순 아시아의 전통적 생활 모습	몬순 아시아의 전통가옥	
		3. 최근의 지역 쟁점: 민족 및 종교적 차이	동남아시아의 민족 및 종교적 차이	말레이시아의 다양한 종교경관으로서의 사원 건축	
V. 건조 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		1. 자연환경에 적응 한 생활 모습	건조 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의 전통 적 생활 모습	건조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의 전통가옥	
VI. 유럽과 북부 아프리카		2. 현대 도시의 내부 구조와 특징	전통을 간직한 유럽의 도시 고층 건물이 발달한 북부 아메리카의 도시	역사가 긴 유럽 도시의 도심 구조와 건축 물의 스카이라인 고층화된 북부아메리카 도시의 스카이라인	
			VII. 사하라 이남 아프 리카와 중·남부 아 메리카	1. 도시화 및 도시 구 조의 특색	식민 지배의 역사가 반영된 중·남부 아메리카 도시 구조
여행 지리****		II. 매력적인 자연을 찾아가는 여행	2. 기후에서 찾을 수 있는 관광적 매력	기후 관광과 인간생활의 관계	각 기후별로 경험할 수 있는 전통문화로서 의 전통가옥
	3. 지구환경의 보존 가치		보존과 개발의 갈등 속에서 변화하는 지구 환경	동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의 건축물 비교 ¹³⁾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베네치아 역사적 건 축물들의 피해와 대책	
	III. 다채로운 문화를 찾아가는 여행		2. 세계적인 문화 여행지의 관광적 매력	세계의 다양한 종교 경관 여행 세계의 다양한 건축물 여행	각 종교 건축물의 대표적 특징 도시 재활성화 수단으로서의 건축물(빌바 오 구겐하임 미술관)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건축물(제네 모스 크, 한국의 종묘) 지역 랜드마크로서의 건축물(파리 에펠탑,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건축학도들의 성지로서의 건축물(르코르 뷔제의 빌라 사보아)
		3. 촌락 여행과 도시 여행의 매력		도시 여행의 특성	역사적 건축물과 현대적 건축물이 집중된 도시여행의 매력
	IV. 인류의 성찰과 공 존을 위한 여행	1. 여행을 통한 인류 의 발전 과정에 대 한 성찰	기념물 여행	대부분 건축물의 형태로 이루어진 역사적 기념물들	

* 구정화 등, 2018, 통합사회, 천재교육.

** 신정엽 등, 2018, 한국지리, 천재교과서.

*** 신정엽 등, 2019, 세계지리, 천재교과서.

**** 조성호 등, 2022, 여행지리, 씨마스.

주) 음영 표시는 건축 관련 학습 요소중 전통적인 지리학습 주제와 관련된 학습요소

구조와 도시경관 요소로서의 건축물'이 학습요소로 활용된다. 즉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세계지리」에서 유럽의 오랜 전통 도시의 특징, 북부 아메리카 도시경관의 특징(초고층건물), 그리고 중·남부 아메리카의 유럽 식민지 시대 도시설계 유산이 반영된 도시경관을 학습할 때 포함되는 학습요소이다.

정리하면 '자연환경을 반영한 전통가옥', '종교경관으로서의 사원 건축 양식', '도시 내부구조와 도시경관 요소로서의 건축물'이 3가지 주제는 그동안 지리교육과정에서 건축 관련 학습요소가 주로 포함되었던 전통적인 지리 학습 주제로 분류할 수 있다.

반면, 2015 교육과정에서 신설된 과목인「통합사회」와「여행지리」에는 신설 과목이라는 특성상 그동안 지리 학습 주제로 많이 다뤄지지 않았던 건축 관련 학습요소가 새롭게 포함되었다. 앞서 살펴봤듯이「여행지리」과목은 '건축'이란 키워드가 성취기준 수준에서 명시된 유일한 과목이다. 그래서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성취기준이 반영된 대단원 Ⅲ. 다채로운 문화를 찾아가는 여행'에서 건축 관련 학습요소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 성취기준에서는 건축이 종교, 음식, 예술 등과 함께 문화여행의 한 유형으로 다뤄지고 있는데, 각 문화여행의 사례별로 문화의 형성 배경과 의미를 이해하는 학습활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처럼 문화여행의 사례별 학습 활동이 중심이다 보니, 건축을 통해 일반화된 지리 지식을 체계적이고 공통적으로 학습하는 형태로 교과서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교과서는 호기심과 탐구심을 유발할 만한 매력적인 건축물을 나열적으로 제시하는 특성을 보이며, 이에 따라 건축 여행을 통해 학습자들이 학습하는 내용은 각 학습자가 처한 교수-학습적 상황에 따른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는다.「여행지리」과목의 또 다른 대단원 Ⅳ. 인류의 성찰과 공존을 위한 여행'에서도 기념물 여행의 사례로 대부분 역사적 건축물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 주제에서 학습되어야 할 내용은 건축물 자체가 아니라 각 건축물이 품고 있는 '인류 발전 과정의 주요 시대적·공간적 특징'이다. 이처럼「여행지리」과목에서 건축 관련 학습요소는 지리학습 내용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학습소재나 단순 사례로 제시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반면 연구자가 주목하는 새로운 건축 관련 지리학습 주제는「통합사회」과목에 포함된 두 가지이다. 첫 번째 건축 관련 학습주제는 대단원 Ⅰ. 인간, 사회, 환경과 행

복'의 중단원 '3.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질 높은 정주환경'이다. 구체적인 사례로 '동네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면사무소 공간 설계'¹⁴⁾가 제시되었다. 우리나라는 소득수준의 향상뿐만 아니라 인권으로서의 행복추구권의 구체적 실현 수단이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으로서도 '질 높은 정주환경' 조성 필요성이 양적·질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질 높은 정주환경을 구성하는 데 건축이 개입하는 영역이 광범위해서 관련 지리학습 주제 개발의 필요성이 커질 것이다.

두 번째 건축 관련 학습주제는 대단원 Ⅱ. 자연환경과 인간생활'의 중단원 '자연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 '생태 중심주의의 의미와 특징' 관련 주제이다. 교과서에서는 생태중심주의가 실천되는 사례로 '생태공동체 마을의 태양열 주택 설계와 자연정화를 위한 하수 설계'가 소개되고 있다. 비록 이 사례가 학습자료 수준으로 소개되고 있지만,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사회 교과와 융합선택 영역 지리 과목으로「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가 신설되었을뿐 아니라 과학 교과에서도 융합선택 과목으로「기후변화와 환경생태」가 신설되었을 만큼 기후변화 대응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건축적 실천의 문제는 지리교육에서의 전통적 학습주제인 '기후와 전통가옥의 특징'만큼이나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학습 주제이다. 같은 맥락에서「여행지리」과목에서도 대단원 Ⅱ. 매력적인 자연을 찾아가는 여행'의 중단원 '3. 지구환경의 보존 가치'에서 '보존과 개발의 갈등 속에서 변화하는 지구 환경' 학습주제에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베네치아의 역사적 건축물의 피해와 대책' 같은 건축 관련 사례가 다뤄지고 있다. 그만큼 변화하는 자연환경에 대한 대응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적 실천'이란 주제가 지리학습 주제로 비중있게 다뤄져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토대로 2015 고교 지리교육과정에서 건축 관련 학습요소가 비중있게 포함되어 있는 지리 학습 주제의 특징을 '건축 관련 전통적 지리학습 주제'와 '건축 관련 새롭게 부상하는 지리학습 주제'로 분류해 정리해 보면 표 3과 같다. 다음 절에서는 2015 지리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그동안 지리교육과정에서 건축 관련 전통적 지리학습 내용이 보여온 한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표 3. 2015 고교 지리교육과정에서 건축 관련 학습요소가 비중있게 포함된 지리학습 주제

건축 관련 전통적 지리학습 주제	자연환경과 인간생활: 기후를 반영한 전통가옥의 특징
	세계 문화지역 구분: 종교경관으로서의 사원 건축 양식
	도시 내부구조와 도시경관 요소로서의 건축물
건축 관련 새롭게 부상하는 지리학습 주제	질 높은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건축적 실천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적 실천

2. 기존 지리교육과정에서의 건축 관련 전통적 지리학습 주제의 내용적 한계

그동안 지리교육과정에서 건축 관련 전통적 지리학습 주제로 비중이 가장 큰 주제가 대주제 ‘자연환경과 인간생활’의 하위 주제 ‘기후를 반영한 전통가옥의 특징’으로, 이 주제는 초·중·고 교육과정에 걸쳐 계속 다뤄지고 있다. 그런데 이 주제학습 내용이 가진 한계는 세 가지 측면에서 지적될 수 있다.

첫 번째는 건축(전통가옥)을 사례로 한 자연환경과 인간생활의 관계에 대한 설명 논리가 환경결정론적으로 비취질 우려가 있을 정도로 단순화된 설명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문제의식은 그동안 지리교육계에서 암묵적으로 공유되어 왔지만 송원섭(2023)의 연구를 통해 공식적으로 다뤄졌다.

송원섭(2023)은 지리교육과정에서 ‘자연환경과 인간생활의 관계’에 대한 주제 학습은 자연환경의 특성 이해(세계의 주요 기후유형 등)가 더 중심적 학습요소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주어진 자연환경의 특성에 대한 인간집단의 문화적 반응 결과로서의 ‘문화경관’에 대한 이해 역시 중요한 학습요소라는 점에 주목한다. 즉 ‘자연환경과 인간생활의 관계’ 학습은 자연지리 학습이면서 문화지리 학습을 위한 주제이다. 그런데 그동안 이 주제의 학습요소로 가장 많이 활용된 ‘기후와 전통가옥의 관계’에 대한 설명 논리가, ‘상관적 반응 기반의 인간-환경론적 설명’이 아닌, ‘단선적 인과성 기반의 환경결정론적 설명’¹⁵⁾에 토대해 왔다는 점을 교과서 분석을 통해 지적했다. ‘단선적 인과성 기반의 환경결정론’에 의한 설명 논리는 ‘추운 지역 사람들은 두꺼운 옷을 입고, 더운 지역 사람들은 얇은 옷을 입는다’ 식의 단순한 일차원적인 설명이다. 이런 단순한 설명 논리는 인지발달 단계가 낮은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적절하다. 하지만 중·고등학교 수준에서도 이렇게 단순한 수준의 내용이 반복적으로 제시되어 초·중·고 간

의 계열성이 상당히 미흡하다.

이렇게 학습내용이 구성된 1차적 배경은, ‘자연환경과 인간생활’이란 학습주제가 전자인 ‘자연환경(세계의 주요 기후유형)’ 이해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으로, 학교 현장에서도 이 학습주제는 보통 ‘자연지리 단원’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이 학습주제에 대한 초·중·고 간의 계열성은 주로 세계의 기후유형별 특징과 각 기후현상의 발생 원리 같은 자연지리 학습내용의 심화를 통해 확보되고 있다.¹⁶⁾ 반면, 인간생활 관련 학습내용은 초·중·고에 걸쳐 대부분 의식주 생활의 특징에 집중되어 있고, 중·고등 수준에서 각 기후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대표적 경제활동을 추가적으로 학습하는 것으로 계열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처럼 인간생활에 대한 학습주제는 자연환경과 의식주 생활의 관계에 대한 지식의 심화를 통한 계열성이 아닌, 자연환경과 관련된 인간생활의 범주를 경제영역으로 넓히는 방식으로 빈약한 계열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자연현상은 인과성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 넓은 반면, 문화현상은 인과성의 원리보다 복잡한 개연성의 원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초·중·고 교육과정에 담아내기 어려운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원섭(2023)은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초등 단계에서는 ‘단선적 인과성 기반의 환경결정론적 설명’ 위주로 학습내용을 구성하고, 중학교 단계부터는 ‘상관적 반응 기반의 인간-환경론적 설명’이 적용될 수 있는 학습내용 개발을 제안한다. ‘상관적 반응 기반의 인간-환경론적 설명’의 구체적 내용은, 자연환경과 인간생활 관계를 자연환경이 인간생활에 미치는 ‘인과성’과 인간집단이 환경이라는 원인에 대해 문화적으로 반응한 결과와 이 문화적 반응의 결과가 다시 원인으로 작동해서 환경에 미치는 상관적 관계인 ‘개연성’을 융합한 학습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다.

송원섭(2023)의 이같은 주장은 미국 문화지리학에서의 전통 가옥 연구에 큰 영향을 준 건축학자이자 환경행

태학자인 아모스 라포포트(Amos Rapoport)의 설명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그는 「주택의 형태와 문화 *House Form and Culture*」(1969, 송보영·최형식 역, 1985)¹⁷⁾에서 전통 주택의 형태는 기후 같은 자연환경 외에도 기술, 경제, 방어, 종교 등 많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한다. 이를 잘 드러내기 위해 라포포트가 던진 질문이 “왜 그렇게 많은 수의 주택 형태가 제한된 수의 기후대 내에서 발달해 왔는가?”이다. 그래서 라포포트는 프랑스 인문지리학자 비달 드 라블라쉬의 생활 양식 (*genre de vie*)¹⁸⁾ 개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문화적 혹은 물리적 환경이 어떤 것을 ‘불가피하게 한다는 것(즉 결정한다)’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어떤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시각에서 접근해야 하며, 따라서 기후 같은 여러 요인을 결정 요인(*determinant factor*)이 아닌 조절 요인(*modifying factor*)으로 설정하고 이 요인들의 복합적 작용으로 주택 형태를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라포포트는 기후적 압박감이 가혹하면 가혹할수록 가옥 형태는 더욱더 제한되고 고정되기 때문에, 기후적 요인으로 주택 형태를 설명하기에 적합한 사례는 기후가 가장 혹독하고 물리적 환경이 가장 어려운 지역의 주택 형태들이라고 서술한다. 이어서 기후요인이 강조되는 주택 형태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예가 북아메리카 북극의 얼음집(이글루), 사막의 진흙과 석재로 만들어진 주택들, 습한 열대 지역의 고상마루, 넓은 처마, 벽이 없는 형태의 전통 주택들이라고 소개한다(Rapoport 1969, 송보영·최형식 역, 1990: 130-131). 바로 이 맥락에서 그동안 지리교육과정에서 기후와 인간생활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 지역과 주택 형태들이 선택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기후-가옥 형태 간의 인과성이 뚜렷하고 전형적인 전통가옥 사례 중심의 학습은 세계적 스케일에서 자연환경과 인간생활 관계를 명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고, 따라서 학습자의 흥미와 이해를 높여 기초 지리 지식을 쌓는 데 유용하다. 이런 세계 스케일에서의 자연-인간 관계 학습내용은 류재명(1998)이 주장한 역환경확대법 적용 필요성처럼 기후 및 인간생활에 관여하는 변수가 단순화되어 저학년용을 위한 지리학습에 적절하다. 하지만 송원섭(2023)의 지적처럼 초·중·고로 갈수록 심화된 학습내용이 구성되지 못하고 일차원적이고 단순화된 학습내용이 반복되는 데 그친다면, 세계 스케일 외에도 다양한 공간 스케일에서의 자연-인간 관계와 관련된 다양한

고 복잡한 문제를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고차사고력을 기르기에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의 라포포트의 「주택의 형태와 문화」의 결론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들의 시대는 물리적 제약 조건이 감소된 시대이다. 우리는 과거에 가능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임계는 그 어느 때보다 낮다.... 이 크나큰 선택의 자유와 그리고 주택 형태가 이제 유행의 영역¹⁹⁾일 수도 있다는 사실은 임계의 개념에 대한 일반적 타당성, 사회문화적 요인의 수위성(首位性), 그리고 이러한 주택의 선택뿐만 아니라 주택의 형태에 대한 이해가 의미하는 모든 것을 시사해준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마치 임계가 매우 높고 물리적인 ‘기능’에 꼭 맞는 것이 필수적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Rapoport, 1969, 송보영·최형식 역, 1990:205).

라포포트가 「주택의 형태와 문화」를 출판한 1969년에 이미 “우리들의 시대는 물리적 제약 조건이 감소된 시대”라고 했지만, 그로부터 약 55년이 지난 현 시점에는 현대 기술의 발달과 세계화의 진전으로 더욱더 기후 같은 물리적 제약의 ‘임계점’이 낮아졌다. 따라서 송원섭(2023)이 주장한 것처럼, 중고등 지리교육과정에서는 단선적 인과성 기반의 환경결정론적 설명 단계에서 더 심화된, 자연적 조건에 의한 인과성과 문화적 선택에 의한 개연성의 두 측면, 즉 상관적 반응 기반의 인간-환경론적 설명의 틀에서 자연환경과 인간생활에 대한 학습내용을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한계는 첫 번째 한계와 연결된 문제인데, 과거에는 현대에 비해 자연환경의 제약을 훨씬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연환경의 영향을 받은 인간생활 특성으로 제시하는 건축 사례의 상당 비중이 현재의 지배적 생활모습이 아닌 문화유산화 되어가는 전통가옥이라는 한계다.²⁰⁾ 이는 과거의 생활모습을 통해 자연환경과 인간생활 관계라는 보편적 주제를 학습하게 되는 문제로 연결된다. 물론 이 문제 역시 이미 지리교육계에 널리 공유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에 따라 2015 교육과정 교과서에서는 열대우림 기후 지역도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에어컨 등을 갖춘 현대식 주택 비중이 높다는 점을 기술하거나, 싱가포르의 현대식 건물에도 몬순 기후의 많은 강수

에 대한 상관적 반응으로서의 건축 양식적 특징이 반영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제시되어 있다.²¹⁾ 그러나 이러한 개선 노력이 아직은 단편적 사례 중심의 미미한 수준이다.

그렇다면 기술 발달과 세계화로 인한 보편적 생활양식의 확대로 세계 곳곳의 현대 건축 경관이 비슷해지고 있으므로, 자연환경과 인간생활 관계를 학습하는 지리학습 주제에서 건축 영역을 다루지 않는 것이 나은 선택일까? 연구자는 전세계적으로 건축 경관이 유사해지고 있다는 일반화는 어디까지나 ‘이전 시대에 비해’라는 전제를 갖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현대 건축 분야에서 중요한 이슈중 하나가 ‘지역주의 건축’이며, 최근 출판된 「건축과 기후윤리」(Baek, 2016, 김한영 역, 2023)라는 책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후변화 시대를 맞아 건축 분야에서도 지속가능성을 위한 건축이 필수요건이 되어가고 있는데²²⁾ 그 해결책이 풍토(영어로 climate)에 대한 이해와 그에 기반한 건축적 실천이다. 따라서 현대기술이 고도화되어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건축은 여전히 유의미하며, 따라서 오늘날의 건축에서도 지역의 자연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건축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리교육과정에 반영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이 과제는 표 3에서 보았듯이 ‘건축 관련 새롭게 부상하는 지리 학습 주제’인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적 실천’과도 연결되는 주제이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한계는, 건축 관련 전통적 지리학습 주제중 하나인 ‘도시 내부구조와 도시경관 요소로서의 건축물’과 관련된 것이다. 앞서 다룬 자연환경과 인간생활 관계로서의 건축은 자연환경의 영향에 대한 인과적 또는 상관적 반응으로서의 건축에 대한 접근이기 때문에 자연환경의 특성 관련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 반면 도시 내부구조와 도시경관 요소로서의 건축은 인문환경으로서의 건축에 보다 초점을 맞춘 주제이다. 그런데 이 주제에서 건축 관련 학습 내용은 도시내부 구조의 경관적 특성 중 하나로 간략하게 언급되거나, 특정 문화권의 역사적 맥락에서 형성된 도시경관적 특성중 하나로 간략하게 언급되는 등 여러 소주제에서 단편적·피상적으로 나열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심화된 학습내용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2022 교육과정에서 신설된 「도시의 미래 탐구」 과목 등 진로 및 융합적 성격을 지향하며 신설된 여러 교과 지리 과목에서는, 건축을 매개로 오늘날 현대 도시에

서의 지리적 현상을 보다 풍부하고 심화시켜 학습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2022 지리교육과정에서의 건축 관련 학습 주제 변화에 대해 보다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3. 2022 지리교육과정에서의 건축 관련 지리학습 주제 변화

2022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2015 교육과정에서 처음 신설된 진로선택 영역 외에 융합선택 영역까지 신설했는데, 진로선택 과목 영역에 한정하지 않고 교육과정 전체적으로 진로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인지 초·중·고등학교 지리교육과정에서 ‘건축’을 키워드로 검색해보면, 과목의 성격, 성취기준, 성취기준 해설에 ‘건축’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고등학교 과목중에서도 일반선택 과목 「세계지리와 시민」과 융합선택 과목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에는 ‘건축’이란 용어가 과목의 성격, 성취기준, 성취기준 해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반면 표 4와 같이 진로선택 과목으로 신설된 「한국지리 탐구」와 「도시의 미래 탐구」는 「과목 성격」에서 어떤 진로를 지향하는 학습자를 위한 과목인지 제시하고 있는데, 건축학이 두 과목 모두에 포함되어 있다. 특히 「도시의 미래 탐구」는 「성취기준」에서 도시 브랜딩의 주요 수단으로 건축의 역할 탐구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성취기준 해설」에서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탐구하는 주요 영역 중 하나로 ‘생태 지향적 건축’을 제시하고 있을 만큼 이전 교육과정에 비해 건축 관련 학습요소가 비중있게 자리 잡고 있다. 반면 「한국지리 탐구」는 「과목 성격」에서 ‘건축’을 진로 분야로 제시한 데 비해 성취기준이나 성취기준 해설에서는 ‘건축’이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렇지만 「한국지리 탐구」 과목 전체를 아우르는 ‘교수·학습의 방향’에서는 “진로 선택 과목임을 고려하여 학습 범위를 지리 영역에 한정하지 않고, 정치, 경제, 정보통신기술, 공학, 환경, **건축**, 도시 계획, 행정, 재난·방재, 자원, 에너지 등 다양한 학문과 연계하여 진로 탐색의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한다”(교육부, 2022:177)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2022 교육과정에서 융합선택 과목으로 영역이 바뀐 「여행지리」 과목은 대단원 2. 문화와 자연을 찾아가는 여행에서 ‘성취기준’이 아닌 ‘성취기준 해설’에서 건축이 언급되고 있다. 이 대단원은 표 1에서와 같이 2015 교육

표 4. 2022 고교 지리교육과정에서 '건축'이 명시된 과목별 주요 내용

과목	과목 성격	단원명	성취기준	성취기준 해설
한국 지리 탐구	지리학, 지역학 분야 뿐 아니라 정치, 외교, 경제·경영, 행정 등 사회과학과 환경과학, 건축, 도시 계획 , 에너지와 방재 분야의 진로를 대비할 수 있다.	-	-	-
도시의 미래 탐구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지리학, 지역학, 도시사회학, 부동산학, 환경학, 도시 계획학, 도시행정학, 도시공학, 교통공학, 건축학 등의 다양한 진로 및 직업과 연관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학생들이 진로를 탐색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2) 변화하는 도시	[12도탐02-02] 문화 자산을 활용한 도시 브랜딩과 건축 이 도시의 경관과 도시에 대한 인식 변화에 미친 영향을 탐구한다.	[12도탐02-02]에서는 역사, 예술, 건축 , 축제, 생활양식 등의 문화 자산을 활용한 도시 브랜딩(도시 마케팅, 도시 브랜드화)의 사례를 통해 문화가 도시의 성장과 변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한다. 특히, 도시 브랜딩에서는 문화 콘텐츠, 마케팅 분야에 대한 진로 탐색, 건축 에서는 유명 건축가와 도시 계획가 등의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건축 및 도시 계획 분야 로의 진로 탐색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한다.
		(4) 도시의 미래	[12도탐04-01]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이 높은 도시가 되기 위한 요건에 대해 토의하고 이와 관련한 도시 계획 및 도시 혁신 사례를 탐구한다.	[12도탐04-01]에서는 도시가 인간과 비인간이 공존하고 상호 작용하는 공간이라는 인식에서 더 나아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사회적, 경제적 측면까지 폭넓게 고려하여 토의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이를 위해 도시 속 동물, 생태 지향적 건축 , 에너지 전환, 쓰레기 처리, 재난과 위험 관리, 사회적 약자 보호, 모빌리티와 이동권, 도시 기반 시설 등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를 탐구함과 동시에 진로 탐색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여행 지리		(2) 문화와 자연을 찾아가는 여행	[12여지02-02] 다양한 문화 경관의 형성 배경과 의미를 이해하고, 감정 이입과 공감의 자세로 여행지 주민을 배려하고 존중한다.	[12여지02-02]는 여행지의 문화경관이 지니는 형성 배경과 의미에 대한 탐구를 통해 여행지와 여행지 주민에 대한 정서적 공감과 실천적 태도를 함양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다. 여기서는 신문화지리적 관점에서 여행지의 외관, 매력뿐만 아니라 문화경관을 둘러싼 다양한 지리적 의미와 상징체계를 종교, 건축 , 예술, 축제, 음식 등의 주제를 통해 학습하는 데에 초점을 둔다.

출처 : 교육부, 2022.

과정에서 유일하게 성취기준 수준에서 건축이 언급되었던 대단원 '3. 다채로운 문화를 찾아가는 여행'이 대단원 '2. 매력적인 자연을 찾아가는 여행'과 통합되면서 재구성된 대단원이다. 이렇게 개정된 대단원은 성취기준에서 '건축'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취기준 해설에서 '건축' 여행을 지리교육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보다 구체적이고 깊이있게 제시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2015 교육과정에서는 건축 여행이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할 만한 매력적 건축물을 나열하는 데 그치고 있어 학습 내용은 학습자들이 처한 교수·학습적 상황에 따른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2022 교

육과정 성취기준 해설에서는 "신문화지리적 관점에서... 문화경관을 둘러싼 다양한 지리적 의미와 상징체계를 ... 건축... 등의 주제를 통해 학습하는 데에 초점을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같은 '신문화지리적 관점'의 명시는 그동안 지리교육과정에서 건축에 대한 접근이 사우어학파의 전통적 문화지리 관점 중심이었다는 한계를 성찰하고 보다 새로운 접근법을 지리교육과정 안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표 5는 표 4에서 살펴본 각 지리 과목 교과서중 한 종씩을 임의로 선정하여 '건축' 관련 학습요소가 포함된 단원과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한국지리 탐구」의 경

표 5. 2022 고교 지리 과목별 교과서에서의 '건축' 관련 학습요소

과목	대단원명	중단원명	소단원명	건축 관련 학습요소
한국 지리 탐구*	3. 국토의 변화와 균형 발전 탐구	4) 국토 불균등과 균형 개발	(2) 국토의 균형 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다양한 노력	우리 마을을 다시 살리기 위한 빈집 활용하기: 마을호텔이나 지역주민문화센터로 활용
도시의 미래 탐구**	2. 변화하는 도시	2) 도시 브랜딩	(2) 도시 브랜딩과 건축	건축과 도시 경관
				디자인 건축을 통한 도시의 부흥
				초고층 건물을 이용한 도시 경관의 변화
				도시 계획 및 공공 건축을 통한 도시 경관의 변화
	3. 도시 문제와 공간 정의	1) 도시의 환경 문제와 재난	(1) 도시 환경 문제	진로 탐구 활동: 도시를 브랜딩하는 건축가, 프랭크 게리 가상 인터뷰
				도시 열섬 및 폭염 대책으로 건축물이 열을 덜 흡수하게 하는 건축설계적 대응
				도시 대기오염 대책으로 건축물의 형태 및 높이에 따른 바람길 예측 및 대응
				도시 홍수 대책을 위한 저류시설 등 건축적 대응
	4. 도시의 미래	2) 부동산과 도시 주거 문제	(1) 부동산에 대한 인식 변화	다양한 유형의 주거용 부동산의 건축적 특성: 아파트, 단독 주택, 다세대 주택, 타운하우스, 빌라 등
		3) 국제 이주에 따른 도시의 변화	(2) 다문화 도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공존을 위한 노력	다문화 친화 도시 네덜란드 틸뷔르흐의 사교 의사 설치 정책
		1)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회복력	(2) 지속가능하고 회복력이 높은 도시 계획과 혁신 사례	건축적 설계를 통한 생태도시 지향: 그린 빌딩 건축 사례
여행 지리***	2. 문화와 자연을 찾아가는 여행	1) 문화 경관을 통해 여행지를 어떻게 읽어낼까?	(2) 문화경관을 읽어내는 여행	건축적 설계를 통한 포용도시 지향: 유니버설 디자인, 횡단보도 앞 휴식용 벤치
				종교에 담긴 문화경관을 읽어내는 여행: 종교 건축
	3. 성찰과 공존을 위한 여행	3) 인류의 현재를 이끌어가는 여행지는?	(1) 새로움을 지향하는 여행	건축에 담긴 문화경관을 읽어내는 여행: 건축 여행(에스파냐 바르셀로나의 가우디 건축, 덴마크 코펜하겐의 친환경 디자인 건축, 아제르바이잔 바쿠의 역사적 건축과 독창적인 현대 건축)
				첨단 기술과 여행: 지속가능성을 위한 첨단 기술을 적용한 건축물(태양열을 흡수하는 거대한 인공 캐노피)

* 조대현 등, 2025, 한국지리 탐구, 천재교육.

** 김영호 등, 2025, 도시의 미래 탐구, 천재교육.

*** 이영민 등, 2025, 여행지리, 천재교과서.

우, 과목의 성격에서는 건축 분야 진로와 관련된 과목이라고 소개한 반면 성취기준이나 성취기준 해설 수준에서는 '건축'이 명시되지 않았는데, 교과서 수준에서는 건축 관련 사례가 제시되어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례가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빈집 활용하기' 탐

구 활동 사례이다. 물론 이 학습요소가 건축 관련 주제로만 한정할 수 없는 다양한 주제와 연결되어 있지만, 빈집을 다른 공간적 기능과 가치를 가진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건축적 재설계'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건축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야다(남해경, 2017; 이

시원 등, 2022). 이처럼 「한국지리 탐구」는 성취기준이나 성취기준 해설 수준에서 명시적으로 ‘건축’이 제시되지 않았을뿐 교과서나 교수-학습 수준에서는 ‘건축’ 관련 학습요소가 여러 학습주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도시의 미래 탐구」의 경우, 성취기준 또는 성취기준 해설에서 ‘건축’이 명시된 대단원 ‘2. 변화하는 도시’와 대단원 ‘4. 도시의 미래’에 건축 관련 학습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교육과정 수준에서는 ‘건축’ 관련 학습요소가 명시되지 않은 대단원 ‘3. 도시 문제와 공간 정의’가 교과서 수준에서는 전체 대단원 중에서 가장 많은 건축 관련 학습요소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중단원 ‘1) 도시의 환경문제와 재난’에서 건축적 대응이 많이 다뤄지고 있고, 중단원 ‘2) 부동산과 주거 문제’에서도 주거용 부동산의 다양한 유형 같은 건축적 요소가 기초지식으로 다뤄진다. 또한 중단원 ‘3) 국제 이주에 따른 도시의 변화’에서도 다문화 친화도시 만들기의 일환으로 건축적 설계가 소개되고 있다.

「여행지리」 과목의 경우도, 교육과정 수준에서 ‘건축’ 관련 학습요소가 명시되지 않은 대단원 ‘3. 성찰과 공존을 위한 여행’의 중단원 ‘3) 인류의 현재를 이끌어가는 여행지는?’에서 지속가능성을 위한 첨단기술을 적용한 건축물 여행 등이 학습요소로 다뤄지고 있다.

이처럼 2022 고교 지리과목에서 다뤄지고 있는 건축 관련 학습요소 분석을 통해, 전통적으로 지리교육에서 다뤄온 건축 관련 학습주제 외에도 새로운 건축 관련 학습주제가 부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같은 새로운 건축 관련 학습주제들은 표 3에서 정리한 ‘질 높은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건축적 실천’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건축적 실천’이라는 두 가지 범주의 지리학습 주제가 보다 내용을 풍부화하고 심화해가고 있는 모습으로 해석된다.

연구자는 이처럼 새로운 건축 관련 학습주제가 부상하고 내용이 풍부화·심화되는 현상이 지리교육의 역량 중심 패러다임으로의 변화와 연계된 것으로 해석한다. 과거의 교육 패러다임은 ‘무엇을 아는가’에 그쳤다면 현재의 교육 패러다임은 ‘내(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로까지 나아간다. 이종원(2024)은 지리적 사고를 함양하기 위한 탐구 질문이 그동안 ‘무엇인가’, ‘어디인가’, ‘왜 거기인가’를 중심으로, ‘어떻게’, ‘왜 중요한가’ 등의 질문을 추구해 왔는데, 여기에 ‘나(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추가되고 있으며 그래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마지막 질문은 지리적 쟁점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을 탐구하는 과정으로서, 학습자가 지식의 수용자에서 능동적인 변화를 이끌어가는 주체로 전환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전통적인 지리학이 상대적으로 큰 공간적 스케일에서 나타나는 지표 상의 지리적 현상을 관찰하고 분석·해석하는 데 집중하는 성격이 강했다면, 건축학은 건물 같은 비교적 작은 공간적 스케일에서의 장소 만들기에 집중하는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지리교육의 패러다임이 학습자들이 자신(우리)이 지향하는 장소 만들기라는 실천적 역량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건축학의 구체적이고 실천적 내용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리교육의 학습내용으로 개발하는 방안은 그 유용성이 높을 것이다.

III. 건축과 지리를 융합한 새로운 지리학습 주제 개발의 필요성과 기능성

이 장에서는 앞 장에서 이루어진 지리교육과정에서의 건축 관련 학습주제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건축과 지리를 융합한 새로운 지리학습 주제 개발의 필요성을 지리교육에서의 건축 학습에 대한 선행연구 및 문화지리학에서의 건축에 대한 접근 변화를 중심으로 논하고 한다. 그런 다음 후속연구에서 본격적으로 연구될 만한 건축을 융합한 새로운 지리학습 주제 개발 영역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1. 지리교육에서의 건축 학습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지리교육과정에서 ‘건축’ 관련 지리학습 주제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지리교육에서의 건축 학습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는 매우 드물다. 연구기간 동안 시차를 두고 2회(2022년 12월과 2025년 3월)에 걸쳐 연구자가 속한 대학 도서관 연구지원 사서의 도움까지 받아 선행연구를 폭넓게 검색했지만, 검색된 문헌중 실제 내용이 지리교육에서의 건축 학습을 다룬 연구물은 2편뿐이었고, 이후 연구자가 건축 지리 관련 문헌을 통해 2편의 연구물을 추가적으로 발견한

것이 다였다. 서론에서도 언급했지만 지리교육에서 건축 관련 연구가 적은 이유는, ‘건축’이 국내의 지리교육과정에서 독자적인 학습주제로 편제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²³⁾ 따라서 여기서는 이 4편의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리교육에서 건축 관련 지리학습 주제 개발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논하고자 한다. 먼저 다룰 두 편의 논문은 지리교육 전문 학술지에 실린 교수-학습 수준에서의 건축 관련 지리 수업에 대한 논문인 반면, 나중에 다룰 두 편의 논문은 지리학 학술지에 실린 건축과 지리교육에 관한 논문이다.

첫 번째 선행연구는 미국의 지리교육학자 Straight and Mustoe(1996)의 논문인데, 국가지리교육표준(National Geography Standards)에서 권장하고 있는 인문경관 관찰과 인간과 환경과의 다양한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지리적 의미 해석 학습을 위해 임시 건축물(temporary buildings) 활용 방법을 제안한다. 임시 건축물은 인문경관 속에서 무수히 발생하고 있는 이동(movement)이란 지리적 현상을 탐구할 수 있는 좋은 학습 대상이기 때문이다. 저자들은 임시 건축물을 활용한 탐구학습의 목표를 i) 임시 건축물의 구조를 지리적 관점에서 사고하기, ii) 임시 건축물이 주변 경관 및 문화와 맺고 있는 공간적 관련성을 해석하고 표현하기로 설정했다. 그리고 아메리카 원주민의 이동식 전통 가옥 티피(Tipi), 미국 남북 전쟁 동안 사용되었던 군대 막사, 현대의 대표적 임시 건축물인 이동식 주택 등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며, 재료 및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임시 건축물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기능해왔는지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이동’ 및 ‘환경과의 상호작용’이라는 지리교육의 전통적 주제를 학습할 수 있을뿐 아니라 분석, 자료 수집, 해석 능력을 기를 수 있다고 제안한다. 영구적 건축물이 아닌 임시 건축물을 사례로 지리학습을 구성하는 것이 꽤 낯설지만, 이 학습이 목표로 하는 지리학습 주제가 지리교육의 전통적이면서 광범위한 학습주제인 ‘환경과의 상호작용’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익숙한 주제이다. 그렇지만 연속성이 아닌 이동성에 초점을 두고 ‘임시 건축물’을 학습 대상으로 선정했다는 점은 모빌리티가 심화되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만한 시도이다.

두 번째 선행연구는 런던 사립학교 수석 지리교사이자 박사학위자인 Dove(2001)가 설계한 영국 국가교육과정 Key Stage 3의 ‘토지이용 패턴과 변화’ 주제 학습을 위

해 학습자들이 사는 런던 교외지역의 개발 시기별 특징적 주택양식 분포를 조사하는 답사수업에 대한 논문이다. Dove(2001:138)는 이 수업 설계의 지리교육적 의의로 학습자들이 자기 지역의 발달 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을뿐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 경관을 보다 의미있게 경험하고 인식하게 해준다고 주장한다. 이 논문을 통해 영국 지리교육과정에서도 건축이 독자적 학습주제로 편성되어 있지 않지만 도시지리 관련 학습주제에서 중요한 학습요소로 활용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만 그가 설계한 수업주제는 수업 준비와 실행에 많은 공력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지리수업보다 심화된 지리수업으로 기획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선행연구는 건축 지리를 문화지리학의 주요 연구분야로 구성한 문화지리학 개론서 저자답게 건축 지리 관련 연구물을 많이 내고 있는 Kraftl(2011)의 논문이다. 영국 버밍엄 대학 홈페이지에 게시된 프로필에 따르면, 그는 어린이 및 청소년의 환경 경험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자이기도 한데, 특히 교육과 건축의 지리(geographies of education and architecture)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²⁴⁾ 이 논문도 ‘교육과 건축의 지리’ 관련 논문중 하나인데, 2003~2010년 동안 영국 노동당 정부 정책으로 시행된 ‘미래를 위한 학교 짓기 Building Schools for the Future(BSF)’ 프로그램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영국 전체적으로 낡은 학교를 새롭게 재건축/리모델링하는 건축적 실천을 통해, 학교를 더 현대화하고 사회적 배제를 근절할 뿐 아니라 학교의 변화가 지역사회 혁신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촉매 역할을 기대하는 노동당 정부 정책이 의도대로 실현될 수 있는가를 비판적으로 성찰한 것이다. Kraftl은 비판적 성찰을 위한 준거로 ‘유토피아 담론’을 활용했다. 유토피아는 어원적으로 “어디에도 없는 좋은 곳”을 의미하며 “현재와는 확실하게 다른 미래를 상상하는 역량”과 관련되는데, 실현의 측면에서는 도시계획이나 건축설계 같은 건축적 실천과 밀접한 관련을 맺어왔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건축은 새로운 것을 구성하는 힘이 있고 변화를 상징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건축과 유토피아는 자주 연루되는 관계이다(Kraftl, 2011: 861). Kraftl이 이 연구에서 주목한 건축과 지리교육의 관계는, 우리나라 지리교육과정에서 건축 관련 새롭게 부상하는 지리학습 주제인 ‘질 높은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건축적 실천’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따라서 영국 지리교육에서도 관련 주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선행연구는 Kraftl과 함께 문화지리학개론을 쓴 문화지리학자이면서 영국 노샘프턴 대학 아동·청소년 연구센터 소속이기도 한 Horton²⁵⁾이 제1저자이고, Kraftl 그리고 그와 같은 과 소속의 인문지리학자이자 아동 및 청소년의 지리적 경험을 주로 연구하는 Hadfield-Hill이 공저자로 참여한 논문이다(Horton *et al.*, 2015). 이 논문은 ‘지속가능한’ 도시 건축으로 특화되어 개발된 대규모 도시 주거단지에 거주하는 8~16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건축(에코하우스, 도시배수장치, 풍력발전기, 광전지판넬 등)이 일상의 지리 속에서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이해/오해되며, 어떤 것들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탐구했다.

이 선행연구가 연구자에게 특별히 의미있게 평가된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한 도시 건축(sustainable urban architecture)’이란 용어를 건물 자체에만 국한하지 않고, 기술적·설계적·계획적·건물적 특징들의 특정한 집합을 가리키는 의미로 정의했을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도시 건축의 실천에 건축뿐 아니라 도시계획, 조정, 도시설계까지 포함했다는 점이다(Horton *et al.*, 2015:903). 즉 건축은 도시계획이나 조정, 도시설계의 구성 요소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모두 포괄하는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으며 그렇게 사용되는 것이 더 유용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를 통해 향후 지리교육에서 ‘건축’의 범주를 보다 포괄적으로 사용할 때의 유용성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의미있게 평가한 것은, 저자들이 연구 토대로 설정한 3가지 전제이다. 하나는 지속가능한 도시 건축의 공간들이 점점 더 다양해지는 어린이 지리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현재 어린이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들이 지속가능성 정책과 계획으로 만들어진 실제의 공간과 어린이의 일상적 만남에 대해서는 별로 주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건축의 일상 지리를 탐색하기 위해 연구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는 점이다(Horton *et al.*, 2015:904). 이는 지리학에서든 지리교육에서든 지속가능한 건축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더 중요시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동안 지리학에서의 건축 연구가 지속가능한 설계에는 별로 주목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지속가능한 건축에 대한 연구와 함께 아동 및 청소년들이 일

상의 지리 속에서 지속가능한 건축을 어떻게 인식하고 경험하며 실천하는지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주장했다(Horton *et al.*, 2015:907). 이 선행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지리교육과정에서 건축 관련 새롭게 부상하는 지리학습 주제중 하나인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적 실천’ 학습의 중요성이 영국의 지리교육뿐 아니라 지리학계에서도 공감대를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리하면, 지리교육에서 건축에 대한 연구가 현재로서는 매우 적지만, 지리교육에서 건축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주장에서 제시하는 지리교육에서의 건축 연구의 범주는 우리나라 지리교육과정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건축 관련 지리학습 주제인 ‘질 높은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건축적 실천’과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적 실천’과 상당히 부합하고 있다. 또한 이 두 범주의 지리학습 주제를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건축학에서의 연구 성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음 절에서는 지리학, 그중에서도 문화지리학에서의 건축 연구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지리교육에서의 건축 학습 주제 개발에 대한 방향성과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2. 문화지리학에서의 건축에 대한 접근 변화와 지리교육에의 영향

앞서 살펴보았듯이 지리교육에서 건축 관련 전통적 지리학습 주제 중 ‘자연환경(기후)와 인간생활: 기후를 반영한 전통가옥의 특징’과 ‘세계 문화지역 구분: 종교경관으로서의 사원 건축 양식’인데, 이는 보통 문화지리학의 영역에 속한다. 또한 2022 「여행지리」 과목 성취기준 해설에서도 ‘신문화지리적 관점에서’ 건축 등의 문화경관을 둘러싼 지리적 의미와 상징체계를 학습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지리교육에서 ‘건축’에 대한 학습은 모험문인 지리학 내에서도 문화지리 영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는 지리학에서 ‘건축’을 중심 연구 주제로 삼아온 하위 영역이 문화지리학이기 때문이며, 이는 지리학에서의 건축 연구에 대한 이론적 성찰을 본격적으로 다룬 초기 연구인 Ford(1984)나 Goss(1988)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문화지리학에서 건축에 대한 접근이 어떻게 변화해왔으며, 이 변화가 지리교육의 건축 관련 학습내용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할지 논

하고자 한다.

문화지리학에서 건축 연구의 계보는 보통 사우어학파의 문화지리학에서 시작한다.²⁶⁾ 엄밀히 따지면 그보다 먼저 독일의 쉘리터를 비롯한 19세기 유럽 지리학자들이 ‘취락 지리학’의 하위 주제로 건축에 관심을 가졌다. 이들은 취락 형태뿐 아니라 가옥 유형 둘다를 연구했는데, 점차 가옥 유형에 대한 관심이 취락 형태와 지역 경계구기에 흡수되었다. 반면 독일의 취락 지리학에 영향을 받은 20세기 초 미국의 사우어학파는 건축 형태 연구에 몰입했다(Ford, 1984:7). 이들은 문화적 인공물(artifact)로서의 건물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는데, 건축 형태와 양식이 공간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문화집단의 지역적 범위와 그 시간적 변화, 특히 이주와 전파에 의한 영향이라고 보았다(Goss, 1988:393). 이에 따라 북미 지역의 농가 형태적 특성에 따라 유형화하고 각 농가 유형별 분포도를 그리고, 농가 유형별 지역적 분포 차이를 기후와 문화집단별 건축 양식의 영향력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사우어학파의 전통가옥 연구는 기후 영향력보다 구대륙 출신 이민자들의 집단별 문화가 북미대륙에 어떻게 확산되어 가는가를 드러내는 데 중점을 두었고, 이러한 배경에서 Jacobs(2006:1)는 사우어학파 건축 연구를 ‘전파주의적 설명’이라고 평했다. 반면 북미와는 달리 비교적 동질적 문화집단이었던 우리나라의 한국지리 교과서에서는 전통가옥의 유형별 지역적 차이를 문화 요인이 아닌 기후 요인으로만 설명하는 학습내용이 구성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도 흥미로운 지점이다.²⁷⁾ 결론적으로 Ford(1984)는 사우어학파가 건축에 관심을 가졌던 배경을 고유한 문화경관과 그 문화경관을 만든 민족을 구성하는 일부로서의 건축 때문이었다고 보았고, 이러한 맥락에서 Goss(1988:393)는 사우어학파의 건축 지리학이 문화지리학이나 역사지리학, 지역지리학의 하위 연구 영역에 속할 뿐 별도의 영역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처럼 사우어학파의 문화지리학은 지리학에서 건축에 대한 접근을 정착시키는 데 기여했지만 상당한 비판도 받았다. 대표적으로 사우어학파의 접근은 건축을 해석하지 않고 건축 양식의 지리적 유형을 기술하고 지도화하는데 그치고 있어 결과적으로 문화에 대한 해석이 두껍기보다 얇다고 평가받았을 뿐 아니라(Lees, 2001:54), 사라져가고 있는 토착 건축물(즉 전통가옥)을 주로 연구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연구 초점이 협소하고 잔존적 형태에

집중함으로써 일반화될 수 있는 이론화와 사회적 적실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Goss, 1988).

사우어학파를 비판하며 등장한 신문화지리학은 건축을 (특히 자본주의적) 사회적 관계를 반영하고 정당화하는 구성물로 이해하거나, 사회적 관계가 새겨진 텍스트로 보고 기호학적 접근을 통해 독해되어야 할 대상으로 보았다(Lees, 2001:54; Lee, 2015:173). 이같은 신문화지리적 접근에서 연구 대상으로 선택되는 건축물은 전통민가를 연구대상으로 삼았던 사우어학파와 달리, 기념비적이고 도시적 성격이 강한 건축물이 많았다(Goss, 1988:393). 이외에도 지리학자의 연구는 아니지만 신문화지리학을 비롯해 지리학에서의 건축 연구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연구 사례가 사회학자 앤서니 킹(Anthony King)의 *Bungalow: the Production of a Global Culture*(1984)이다. Jacobs(2006:2)는 킹의 방갈로 연구가 사우어학파의 지도 그리기 위주의 전파주의적 접근과 인식론적으로 단절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한다. 킹은 남아시아의 인도에서 기원한 특정 건축 형태인 방갈로가 영국을 비롯한 식민제국들이 주도적으로 형성한 세계체제에 의해 글로벌 문화가 되어 지구적 건축 형태로 확산되어 가는 과정을 탐구했다. 방갈로라는 특정 주거 건축의 변형과 확산 과정을 통해 식민주의, 자본주의, 도시주의, 지구적 문화의 형성과 작동 방식을 거시적으로 탐색한 것이다(King, 1990, 이무용 역, 1999).

그러나 신문화지리학적 접근의 건축 연구 성과가 초중등 지리교육과정에서 일정한 지리학습 주제로 자리잡지는 못했다. 건축 등을 포함한 경관이나 장소에 대한 신문화지리적 연구가 주로 상징, 의미, 헤게모니, 권력 관계를 탐구할뿐 아니라 자본주의에 비판적 접근을 취하는 경향이 강해, 객관적으로 명확한 정답 도출 및 정치적 입장 표출에 대한 부담이 높은 초중등 지리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도입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데 2015 교육과정 때 신설된 「여행지리」 과목은, 절대평가이면서 A, B, C 세 등급으로만 평가하기 때문에 명확한 정답이 있는 학습 내용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었을뿐 아니라 2022 교육과정에서도 계속 절대평가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여행지리」 과목은 대부분 수행평가 위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신문화지리적 관점에서 건축 문화경관을 학습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었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학습 사례가 풍부하게 개발될 필요가 있다.

한편 문화지리학에서 건축에 대한 접근은 비재현 지리

학의 부상으로 새롭게 연구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신문화지리학에서의 건축에 대한 접근은 주로 건축물을 만드는 데 관련한 권력집단의 의도가 어떻게 건축물의 형태에 상징적으로 반영되어 사회적 관계에 작동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때문에 비재현 지리학은 신문화지리학의 접근이 거시적 관점에서 건축물을 만든 권력집단이 건축물에 새기려 한 상징과 의미의 독해에 치중했으며, 건축을 사람들이 살아가는 '장소'가 아닌 '경관'으로만 보고 텍스트적, 상징적, 도상학적 접근을 취하는 데 몰두했다고 비판한다(Krafl and Adey, 2008:214). 이 과정에서 정작 건축물을 직접 이용하는 다양한 행위주체가 건축물과 관계맺음을 통해 실제로 어떻게 느끼고 경험하는지가 간과되고 있다는 것이다. Krafl(2010)에 따르면 비재현 지리학의 특징은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신체적 실천에 대한 관심으로, 신문화지리학처럼 사람들이 건축물에 대해 무엇을 생각하는가(의미, 상징, 권력 등)가 아니라 건축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신체적 실천에 관심 갖는다. 두 번째는 건축물의 물질성에 주목해서, 사회적 공간 안에 있는 비인간 물질과 기술의 적극적인 역할을 탐구하는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을 활용한다. 즉 건축물을 고정된 사물로 보지 않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건축물이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기술(파이프, 블록, 케이블 등), 실천(건설, 거주, 파괴), 규제(법, 건강 및 안전 관련 입법 등) 간의 네트워크를 심도깊게 연구한다. 세 번째는 정동에 대한 관심으로, 건축 공간이 어떻게 특정 정동을 불러일으키는가를 연구한다.

이처럼 건축물의 형태학적 특성에 초점을 맞춘 사우어학파의 연구나 건축물이라는 텍스트 속에 재현된 권력관계 독해에 몰두한 신문화지리학 모두 '재현' 그 이상까지 나아가지 못했다고 비판한다는 점에서 비재현적 건축 지리학은 '비판적 건축 지리학'(Lees, 2001:51)으로도 불린다.

비판적 건축 지리학은 건축 사용자(점유자, 소비자 등)의 목소리와 이들이 건축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대한 민족지적 탐색을 강조하는데(Lees, 2001; Jacobs, 2006), Lee(2015:173)는 이처럼 건축 사용자의 목소리에 주목하는 비판적 건축 지리학의 부상에는 지리학 내·외부에서의 지적(知的) 자원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한다. 그중 하나가 보통의 소비자들이 상품과 소비 공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과정을 통해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는 사회적 의미와 가치에 주목하는 '새로운 소비 지리학'의 영향이

고, 또 하나는 건축이 유발하는 사회적 사회작용에 주목하고 신중히 살피는 도시계획가 및 건축가 집단의 영향이다. 이 두 가지 영향은 본 연구에서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 '새로운 소비지리학과 건축'의 관계는 「도시의 미래 탐구」 과목의 '도시 브랜딩과 건축' 주제 뿐만 아니라, 「한국지리 탐구」 과목의 '핫 플레이스와 장소마케팅' 주제에서도 의미있는 학습요소를 제공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건축이 유발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심 갖는 도시계획가 및 건축가 집단'이 비판적 건축 지리학에 미친 영향은 건축학의 성과를 지리교육의 새로운 학습주제 개발에 활용하려는 본 연구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다시 말해 이미 지리학계에서는 건축가들의 실천적이고 윤리적인 사회참여 활동에 영향을 받아 연구 영역의 확장을 꾀하고 있다.

또한 비판적 건축 지리학이 연구 방법론으로 취하고 있는 비재현 접근은 신체를 통한 인간의 지각, 감정, 의미, 경험 등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인본주의 지리학 전통을 일부 계승하고 있다고 평가받는다(송원섭, 2015). 그런데 흥미롭게도 건축 지리학의 연구 흐름을 다룬 선행연구 대부분은 인본주의 지리학에서의 건축에 대한 접근은 다루고 있지 않다. 대표적 인본주의 지리학자 투안의 「공간과 장소」(Tuan, 1977, 구동회·심승희 역, 1995) 8장이 「건축 공간과 인식」이며, 렐프의 「장소와 장소상실」(Relph, 1976, 김덕현 등 역, 2005)도 노베르그 슐츠 같은 실존주의 건축가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뿐 아니라, 발터 그로피우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르 코르뷔제, 알바 알토 같은 대표적 모더니즘 건축가들의 건축과 건축 및 도시계획가인 케빈 린치의 도시 이미지를 구성하는 5가지 물리적 요소 등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는 데도 말이다. 무엇보다 투안과 렐프 모두 공간을 장소로 만드는 데 건축물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Goss(1988:393-394)는 케빈 린치에 많은 영감을 받은 인본주의 전통의 연구가 건조환경(built environment)의 의미와 사회적 중요성을 드러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따라서 비판적 건축 지리학의 접근법 등을 통해 인본주의 지리학이 추구했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장소감을 형성할 수 있는 장소 만들기 구체적 방안 등을 지리학 학습 주제로 개발하는 데 의미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3. 건축을 융합한 새로운 지리학습 주제가 보여줄 가능성

1) 왜 건축을 융합한 지리학습 주제인가?

앞에서 그동안 지리학에서의 건축 연구는 건축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을 발전시키면서 건축 지리의 영역을 확장해 왔으며, 이같은 건축 지리의 발전에는 건축학 분야에서의 연구 및 실천적 성과를 적극적으로 지리학 영역에 받아들인 것도 기여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Lee, 2015).

Ford(1984)는 전통적 문화지리학에서의 가옥(house) 연구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도시 및 사회지리학자들에 의해 상품으로서의 주택(housing) 연구로 기울면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가옥에 대한 관심은 적어졌다고 했다. 물론 이러한 변화를 통해 기술적(記述的) 수준에 그쳤던 가옥 연구의 한계를 넘어, 건축을 사회적·경제적·제도적 프로세스와 관련지어 접근하는 방법론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건축물을 주택이나 건조환경 같은 개념으로 추상화하면서 ‘마크로’한 스케일에서의 사회경제적이고 제도적 프로세스 중심으로 접근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가로(街路) 스케일처럼 각 행위주체가 건축물과 일상적이고 생생하게 상호작용하는 스케일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프로세스는 포착하지 못하고 피상적 수준에 그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구체적인 건축적 맥락에서 접근하게 되면 도시의 변화를 보다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그는 “사람들은 A지점에서 B지점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A건물(house)에서 B건물로 움직인다. 우리가 공간보다 장소에 더 관심 가져야 하는 이유다. 지리학과 건축 간의 협업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가치 있는 생각이고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Ford, 1984:31)고 끝맺고 있다.

이처럼 Ford(1984)는 지리학에서의 건축 연구, 즉 건축 지리의 학문적·사회적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학과와의 협업을 강조한다. 지리학에서 건축학과와의 협업은 결국 건축 지리학의 영역을 확장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에서 ‘새로운 건축 지리’라는 명명 대신 ‘건축과의 융합’이라는 명명을 선택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건축과 지리의 융합’은 기존 지리학의 틀에서 벗어나 건축학의 성과를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방향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또 하나는 지리교육은 모학문인 지리학 정체성 지키기 책무 외에도 학

교교육내 타 교과와의 관계에서 지리 교과의 유용성, 경쟁력, 차별성 제고의 높은 책무를 갖기 때문이다. 즉 2015 교육과정에 이어 2022 교육과정에서는 진로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고, 융합 선택 과목의 신설 등 융합적 성격의 과목을 강화하는 추세 속에서 건축학과의 적극적 융합을 통해 지리 교과의 유용성, 경쟁력, 차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이다.

건축학과 지리학은 역사적으로 오랜 친연성을 가져 왔는데, 특히 건축학이 공학적 성격과 인문학적 성격을 모두 포괄하는 학문이고 지리학 역시 자연과학과 사회 및 인문과학적 성격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학문이라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학교 교과적인 측면에서 사회 교과에 속해 있지만 여타 사회 교과와 달리 이과적 성격도 포함하고 있는 지리 교과로서의 차별성과 유용성 제고에 건축학과의 융합은 높은 긍정적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Ford(1984)가 주목한 것처럼, 지리교육에서는 그동안 세계 스케일이나 국가, 도시 및 지역 스케일에서의 학습 내용이 지배적이었다. 그런데 건축은 건물 수준에서 가로(街路) 수준, 도시계획 수준까지 포괄적이긴 하지만, 건물이나 가로 수준이 중심적이라는 점에서, 지리교육에서 공간적 스케일의 다양성 확보와 그에 기반한 새로운 지리학습 주제 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건축과 융합한 새로운 지리학습 주제 개발 영역 제안

여기서는 건축과 융합한 새로운 지리학습 주제 개발을 위한 시도로 몇 가지 개발 가능한 영역을 제안하였는데, 구체적인 학습내용 개발은 후속 연구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1) 전통적 지리학습 주제의 현대화와 지속가능성 교육 강화를 위한 건축과의 융합

Ⅱ 장 2절에서 건축 관련 전통적 지리학습 주제인 자연 환경과 인간생활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한 건축 사례가 대부분 전통가옥 위주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전통가옥의 형태적 특징에 대한 설명이 문화적 개입 프로세스가 누락된 채 기후에 의한 단선적 인과성의 틀로 초·중·고 계열성 없이 제시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과거의 생활모습을 통해 자연환경과 인간의 관계라는 보편적 주제를 학습하게 되는 한계를 갖는다고 지적되었다. 송원섭(2023:34)

은 초-중-고 계열성 없는 ‘단선적 인과성 기반의 환경결정론적 설명’에 대한 대안으로 중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상관적 반응 기반의 인간-환경론적 설명’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고, 구체적으로 중학교 수준에서는 비가 많이 오는 지역 건축물의 과거 모습과 현대 모습의 차이 학습을 예시로 들었다. 이를 통해 강수가 지역 문화에 미치는 인과적 특성뿐 아니라 과학기술의 발달과 세계화 등으로 현대에는 다양한 방식의 변형, 즉 인간-환경의 상관적 반응이 작동함을 학습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처럼 현대기술의 발달과 지구적 문화의 확산으로 자연환경적 차이와 상관없이 세계의 건축 경관이 동질화되어 가고 있지만, 아래 지리학자 투안이나 건축가 백진, 정기용의 글처럼 자연환경적 차이가 현대 건축에도 반영될 수밖에 없다.

“... 이러한 원시 건축가와 현대 건축가의 대조는 물론과장된 것이다. 전자가 완전히 관습에 얽매이는 것은 아니며, 후자가 무제한적 선택기회를 가지는 것도 아니다... 자연환경은 정태적이거나 등질적이지 않다... 따라서 건축가는 생각하고 적응하고 혁신해야 한다.”(Tuan, 1977, 구동회·심승희 역, 1995:169-171).

“미스 반 데어 로에의 .. 유리 마천루는 미학과 기계 공조가 연대하여 ‘기후 지우기’를 실현한 예이다. 특히 미스의 ‘시그렘 빌딩’(1958)은 전 세계 유가가 급속도로 하락하고 신복합 에너지원에 대한 꿈에 들떠 있던 때 완성된 건

물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건축이 기후의 존재를 외면할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윤리, 즉 에토스의 영역이 사라지는 것이다. 개인에게 ‘풍요로운 경험’을 제공하면 그만이라는 당대의 건축적 흐름을 넘어서 파편처럼 흩뿌려진 개인들을 모아내고, ‘우리’라는 차원을 끊임없이 환기시키는 계기인 기후의 현현을 구조적으로 차단해버리는 것이다.”(Back, 2016, 김한영 역, 2023:24).

“다수를 위한 공공건축일수록 이 땅의 기후와 풍토와 풍경에 얼마나 적절한 해답을 가져오는지 반성적으로 바라 봐야 한다.”(정기용, 2008:10).

따라서 현대 건축을 사례로 자연환경과 인간생활 관계를 학습할 수 있는 사례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 건축학에서의 여러 활동과 성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현 건축법중 에너지 절약이라는 문화적 선택(문화적 요인)과 지역별 기후 특성이 상관적으로 반영된 조항을 지리학 학습 내용으로 개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제6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의 1항 단열조치일반사항에는 ‘다.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에 대하여는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단열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하위조항이 있다. 그리고 이 하위조항에는 ‘별표3의 지역별·부위별·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이상으로 설치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는 세부사항

표 6.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중 (별표3) 단열재의 두께

(단위:mm)

건축물의 부위	지역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가	나	다	라
거실의 외벽: 공동주택중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중부1지역: 강원특별자치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제외),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 청송)	220	255	295	325
	중부2지역: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제외),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봉화, 청송,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제외),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거창, 함양), 대구광역시(군위)	190	225	260	285
	남부지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군위 제외),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경상남도(거창, 함양 제외)	145	170	200	220
	제주도	110	130	145	165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있다. 이 세부사항을 건축물의 부위중 ‘거실의 외벽’을 사례로 간략히 재구성해 보면 표 6과 같다.

이 표를 보면, 지역별 기온을 반영하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를 위한 단열재 두께 기준이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현대 기술의 발달과 현대적 건축양식의 전지구적 확산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자연환경의 차이를 반영한 건축물의 지역적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단열재 두께 기준을 가르는 지역 구분이 어떤 근거에 의해 설정되었는지 탐구하는 활동을 학습문제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전세계 곳곳에서 실천되고 있는 ‘지역주의 건축’ 사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역주의 건축이란 모더니즘 건축의 국제적 방식에 대한 거부이면서, 전통적 기법의 무비판적 도입이 아니라 지역의 고유한 전통이 새롭게 해석되고 수정 및 보완된 형태로 지역적 전통을 추구하려는 경향을 말한다(김세영, 2013). 이 같은 지역주의 건축의 이론적 기반이 건축사학자 건축비평가인 케네스 프램프턴(Kenneth Frampton)의 ‘비판적 지역주의(critical regionalism)’이다.²⁸⁾ 비판적 지역주의의 기본 전략은 보편적 문명화의 영향을 특정 장소의 특수성으로부터 ‘간접적으로’ 파생된 요소들로 중재시키는 것으로, 지역의 빛이 가진 범위와 특성, 주어진 장소의 지형, 지역의 고유한 구조에서 유래한 건축의 구조적 표현(tectonic) 같은 데서 중요한 영감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Frampton, 1983:21).

무엇보다 지역주의 건축이 주목받는 배경에는, 지역의 자연환경과 무관한 국제주의 건축의 확산이 초래한 에어컨, 난방기, 환풍기 사용 증가 등 에너지 과소비로 인한 지속가능성 위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김세영, 2013 등). 인도의 건축가 찰스 코레아(Charles Correa)는 대표적인 지역주의 건축가인데, 특히 기후를 건축의 기본이자 변하지 않는 요소로서 문화(표현과 의식, 관습)의 조건으로 보고 기후 응답형 건축(climate responsive architecture) 또는 생물 기후적 건축(bio-climatic architecture)을 추구한 건축가로도 불린다(이시효, 2007). 찰스 코레아와 더불어 대표적 기후 응답형 건축가로 꼽히는 말레이시아 건축가 켄 양(Ken Yeang)은 다음과 같이 기후 응답형 건축(생물 기후적 건축)의 특성을 설명한다.

기후는 장소의 변하지 않는 특성이며, 따라서 어떤 상징 장치보다 더 진정성 있다. 지역의 기상 데이터를 기반으

로 설계한다면, 그에 따른 건축적 대응은 지역의 특정 기후 조건과 계절 변화에 따라 **온대 지역의 차양설계, 한랭 지역의 콤팩트한 형태, 온난건조 지역의 열용량 조절, 온난습윤 지역의 풍부한 환기** 등 서로 다른 건축 특성을 만들어낸다(Yeang, 2015:vii).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건축적 대안중 하나가 패시브 건축(passive architecture, 수동형 건축)인데, 이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냉난방 및 조명을 포함한 환경 제어를 외부 에너지에 의존하지 않고 태양 고도, 바람 방향, 단열 성능 등 자연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건축 설계 방식을 말한다. 그런데 “풍토 건축(vernacular architecture)이 곧 패시브 건축”이라고 할 정도로,²⁹⁾ 전통 건축의 현대적 변용과 관련된 내용 요소는 지리교육의 전통적 주제인 자연과 인간생활의 관계 이해를 단순한 인과적 관계에서 상관적 반응 기반으로 심화시킬 뿐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데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다. 또한 앞서 살펴보았듯이 기후 특성을 반영한 전통가옥 위주의 기존 지리학습 내용이 기후 인과력이 뚜렷한 극단적 기후 지역(건조, 열대, 한대 기후 등) 중심으로 구성되는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이 같은 전통적 지리학습 주제의 현대화와 지속가능성 교육 강화를 위한 건축과의 융합은 지구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온대 기후 지역을 균형있게 포함시킬 수 있을뿐만 아니라, 열대-온대-냉대 같은 세계적 스케일의 인간-환경론만이 아닌 다양한 공간 스케일에서의 인간-환경론을 학습할 수 있는 내용 구성에도 기여할 것이다.

(2) 기술 발달에 따른 건축공간과 생활의 변화

바로 앞에서는 인간-환경의 이해 및 지속가능성 교육을 위해 지역의 자연환경 등 지역성을 반영한 지역주의 건축에 초점을 맞췄다. 여기서는 세계의 대도시들이 왜 유사한 모습을 띠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되는 학습 주제를 제안한다. 바로 건축 재료 및 공법의 발달 같은 ‘기술의 발달에 따른 건축 공간과 생활의 변화’라는 지리학습 주제의 개발이다. 이 주제는 예를 들어 「도시의 미래 탐구」 과목의 대단원 ‘1. 삶의 공간, 도시’의 두 번째 성취기준 “[12도탐01-02] 도시의 발달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유형의 도시를 비교하고, 내가 사는 도시의 발달과정을 탐구한다” 같은 성취기준 등에서 일상 공간인 ‘건물’ 또는 ‘가로(街路)’ 스케일에서 도시의 특성

을 학습하는 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근대 도시 경관을 대표하는 마천루의 등장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건축 재료(콘크리트, 철골, 유리)와 엘리베이터의 발명, 그리고 콘크리트와 철골의 사용으로 이전 시대보다 건물의 창, 문, 통풍구 같은 개구부(opening)를 대폭 넓힐 수 있게 되고, 에어컨 등의 실내 온도조절 장치, 형광등 같은 인공조명 장치는 자연채광을 위한 창문 디자인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고 이는 국제주의 건축 양식의 확대를 가져오면서 전세계 대도시 경관을 비슷비슷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방식의 동질화에도 영향을 끼쳤음을 학습할 수 있다(심승희, 2020; 유현준, 2020; 임우진, 2022).

뿐만 아니라 건축 기술의 발달은 건축 영역에서 유발되는 탄소 배출³⁰⁾을 줄여 지속가능성의 실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건축가는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를 통해서 보다 자신의 일을 통해 탄소를 줄일 수 있는 능력이 196배 크다”(Architects’ Journal, 12 March, 2024)³¹⁾라고 말할 정도로, 건축 기술의 발달을 통해 전지구적으로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현재 탄소중립 건축을 위해 발전시키고 있는 기술로는, 해체가 가능한(따라서 재활용이 가능한) 건축 자재 개발, 탄소 배출을 유발하는 도시민들의 이동을 줄이기 위한 복합 건물 설계 개발, 태양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동·서·남·북 모든 방향의 태양광 집열 건축 설계 개발, 기후 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에 대비하여 공유수면 위에서 생활할 수 있는 건축 설계 등이 있다.³²⁾ 이같은 기술 발달을 통한 건축 공간과 생활의 변화를 학습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시민 건축가’가 되어 과거-현재-미래의 차원에서 날카롭게 공간적 변화를 성찰하고 창의적으로 미래의 공간을 상상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3) 건축 설계 관련 기초개념 학습을 통해 정주환경의 질을 개선하는 ‘능동적 시민’ 되기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융합 또는 진로 영역 지리 과목 수준에서 건축 설계 관련 기초 개념을 도입하여 우리 정주환경에 대한 이해를 건물 및 도시 스케일에서 보다 구체화 및 심화하고, 이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정주환경의 질 개선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지리학습 주제를 제안한다. 먼저 이 지리학습 주제가 지향하는 방향성을 다음 세명의 건축 및 도시설계가의 글을 통해 구체적으로 그려보기로 한다.

서로 비슷한 관점을 공유한 전통 공동체 사회의 ‘이심전심’이 오늘의 거대 도시환경 속에서도 통용되길 바라게 되면... 문제는 도시 구조에서 발생하는데 원인을 사람에게서 찾게 된다... 시스템의 결함보다 사람(자신은 제외한)의 수준과 소양을 탓한다. 그것이 더 쉽고 속도 시원하기 때문이다. 지루한 조사와 치밀한 연구, 힘든 합의와 값비싼 인프라 개선은 따분하고 느릴뿐더러 ‘악인’을 비난하는 후련함을 주지도 않는다... 시스템은 시민이 착하든 그렇지 않든 일관되게 작동할 때 공적 시스템이 된다(임우진, 2022:26-36을 연구자가 재구성).

건축에서는 사람들이 원하고 사회가 원하는 삶의 형식을 실현시킬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먼저이고, 그 결과가 형태나 모양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는 건축의 기능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면밀한 관찰을 통해 사람들의 삶을 보살피주는 배려에 대한 문제다... 그 건축속에서 진행될 오늘과 내일의 삶을 조직하며, 또한 시대마다 건축에 위임하고 싶은 정신과 삶을 반영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건축가다(정기용, 2008:79, 243을 연구자가 재구성).

지방자치체가 부활하면서 우리는 4년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는 선거를 치르고 있다. 좋은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시민이 먼저 주인 노릇을 제대로 해야 한다. 즉 시장(市長)보다 시정(市政)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시정보다 시민(市民)이 더 중요하다... ‘좋은 도시는 오직 좋은 시민만이 누릴 수 있다’는 말, 그것이 만고불변의 진리다. 아름다운 도시, 살기 좋은 도시에서 살고 싶은가, 그럼 다른 방법이 없다. 당신의 도시에서 주인 역할을 제대로 하면 된다(정석, 2013:268).

이처럼 건축 설계 관련 기초개념 학습을 통해 사람들이 살아가는 정주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지리학습 주제로 여기서는 3가지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용적률을 비롯한 건폐율, 입면적, 차폐도 등 도시의 밀도 및 경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축 설계 관련 기초 개념을 학습하고³³⁾ 이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정주환경의 질을 구성하는 건축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시민으로서 공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학습주제를 개발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는 다양한 교통정온 화기법(traffic calming) 관련 건축 설계 개념(예: 교통 섬(traffic island), 보차공존도로 등) 학습을 통해 노약자, 장애인 등 다양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을 학습하고 탐구해보는 학습 주제를 개발할 수 있다.

세 번째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관련 학습주제이다. 이 주제에 대한 개념적 출발점으로 보통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의 저자 제인 제이콥스(Jane Jacobs)와 「방어가능한 공간」의 저자 오스카 뉴먼(Oscar Newman)을 꼽는다. 제이콥스는 활발한 사회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도시 공간의 조성을 통해 자연스럽게 「가로(街路)의 감시자」 역할을 맡게 되는 길 위의 사람들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뉴먼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사회조직의 물리적 표현」을 창조함으로써 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주거환경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최윤경, 2003). 이 두 이론의 약점과 강점을 비교·검토하면서 현대 도시 공간에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공간 설계의 문제부터 그와 연관된 더 큰 스케일에서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문제들을 통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IV. 결론

지리와 건축의 본래적 친연성에 주목한 본 연구의 직접적인 배경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사회적·제도적 변화로서 건축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으로 건축 영역이 개별 건축물의 범주를 넘어 공공재로서의 성격이 강화됨에 따라 공동체의 삶의 질에 미치는 건축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지리교육의 지평 확장에 활용하기 위함이다. 또 하나는 2015 및 2022 지리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라 진로 비전의 강화와 새로운 지리학습 주제 개발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리교육과정에서 건축 관련 학습 주제 및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왔는지 성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축과 지리를 융합한 새로운 지리학습 주제 개발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2015 지리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지리교육과

정에서 건축 관련 학습주제의 특징을 분석해 보면, 건축 관련 전통적 지리학습 주제는 크게 3가지로, ‘자연환경을 반영한 전통가옥’, ‘종교경관으로서의 사원 건축 양식’, ‘도시 내부구조와 도시경관 요소로서의 건축물’이다. 그런데 ‘자연환경을 반영한 전통가옥’에 대한 학습내용은, 초·중·고에 걸쳐 단선적 인과성 기반의 환경결정론적 설명 위주로 구성되어 중등과정에서는 보다 심화된 상관적 반응 기반의 인간-환경론적 설명의 틀에서 학습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연환경의 영향을 받은 전통가옥 위주의 학습내용은 과거의 생활모습을 통해 자연환경과 인간생활 관계라는 보편적 주제를 학습하게 되는 한계를 갖는다. 반면, 2015 및 2022 개정 지리교육과정에서는 신설 과목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건축 관련 지리학습 주제가 부상하고 있는데, 특히 ‘질 높은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건축적 실천’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건축적 실천’, 이 두 가지 범주의 주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건축 관련 지리학습 내용이 풍부해지고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지리교육 패러다임이 자신(우리)이 지향하는 바람직한 장소 만들기 같은 학습자의 실천적 역량 함양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흐름과 관련 있다.

이러한 지리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앞으로 건축학의 강점인 구체적이고 실천적 내용 요소를 융합하여 지리교육의 학습내용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건축과 융합한 구체적인 지리학습 주제 개발 영역으로 ‘전통적 지리학습 주제의 현대화와 지속가능성 교육 강화를 위한 건축과의 융합’, ‘기술 발달에 따른 건축 공간과 생활의 변화’, ‘건축 설계 관련 기초개념 학습을 통한 정주환경의 질을 개선하는 능동적 시민 되기’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각 주제 영역별 구체적인 학습내용 개발은 앞으로 후속 연구를 통해 계속 진전시킬 것이다.

註

- 1) 건축학자 Gissen(2008)은 건축과 지리학의 현대적 관계를 탐색하면서 지리학이 발전시켜온 지질, 지도학, 데이터, 경관 같은 개념이나 방법론뿐 아니라 영토성 같은 이론적 논의를 현대 건축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두 분야의 연결고리를 이론적·실천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건축의 ‘지리적 전

- 환'을 주장했다.
- 2) 선정된 5가지 주제는 건축 지리, 경관, 텍스트의 지리, 수행의 지리, 정체성이다.
 - 3) 2020년 3월부터 매주 방영되고 있는 EBS 교양 프로그램 '건축탐구 집'의 꾸준한 인기도 건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대중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 4) 건축공간연구원에서는 계간지 「건축과 도시공간」을 출판하고 있는데, 지리학에서도 관심갖고 있는 주제를 많이 다루고 있다.
 - 5) 유현준의 저서만 예를 들어도 다음과 같다.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도시를 보는 열다섯 가지 인문적 시선」(2015), 「어디서 살 것인가- 우리가 살고 싶은 곳의 기준을 바꾸다」(2018), 「공간이 만든 공간- 새로운 생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2020), 「공간의 미래- 코로나가 가속화시킨 공간 변화」(2021).
 - 6) 예를 들어 유현준의 「공간이 만든 공간」(2020)에서 다룬 주제인 “벼농사냐 밀농사냐”, “강수량이 결정한 건축 공간의 특징” 등은 지리 수업에서 흔히 다뤄온 학습내용이다.
 - 7) “the art and technique of designing and building, as distinguished from the skills associated with construction”(https://www.britannica.com/topic/architecture, 2025년 7월 29일 검색)
 - 8) https://soa.syr.edu/school/naab-accreditation/?utm_source, 2025년 7월 29일 검색
 - 9) 일반적으로 '학습내용(learning content)'은 학습자가 배워야 할 지식, 기능, 태도 등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체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명명하는 용어이다. '학습주제(learning theme)'는 학습내용을 주제 중심으로 묶은 것을 말한다. '학습요소(learning element)'는 학습내용을 세분화한 학습 항목을 말하며, '학습소재(learning material)'는 학습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구체적인 자료나 매체를 말한다. 학습소재는 학습의 맥락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되지만, 학습요소는 반드시 학습되어야 할 내용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 맥락에 따라 학습소재와 학습요소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다.
 - 10) 지리교육의 전통적 대주제인 '자연환경과 인간생활'은 2015 지리교육과정 내용체계에서 가장 상위 범주인 5대 영역(지리인식, 장소와 지역, 자연환경과 인간생활, 인문환경과 인간생활, 지속가능한 세계)중 한 영역이기도 하다.
 - 11) 본 연구에서 과목별로 1종의 교과서만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2015 지리교육과정에서 건축 관련 학습내용이 성취기준 수준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것과 달리, 교과서 수준에서는 상당히 여러 특정 주제에 걸쳐 비중있게 다뤄지고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 교육과정 수준과 교과서 수준 간의 비교가 필요했음뿐, 출판사별 교과서 내용 비교까지는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접근이 용이한 출판사 1종만을 선정하였다.
 - 12) 건조 및 냉·한대 기후 단원에서 기후와 전통가옥 관련 학습요소가 다뤄지지 않은 이유는, 해당 성취기준이 '기후와 주민 생활'이 아닌 '기후와 지형의 관계'를 탐구하도록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 13) 이 주제에 대한 서술은 건축가 유현준의 「공간이 만든 공간」의 내용을 교과서 한 쪽에 걸쳐 인용한 것이다.
 - 14) 교과서에는 이 학습사례의 자료 출처가 'EBS 지식채널e'로 되어 있는데, 이 방송의 원출처는 건축가 정기용의 「감응의 건축: 정기용의 무주 프로젝트」(2008)이다.
 - 15) 송원섭(2023)에 따르면 '단선적 인과성 기반의 환경결정론'은 환경이 원인이고 인간생활(생물학적 형질 변화 포함)은 결과에 해당하는데, 이는 결과가 원인인 환경에 어떠한 변화도 미치지 못하는 '적응(adaption)' 개념이 적용되는 현상에만 부합하는 논리다. 반면 '상관적 반응 기반의 환경결정론'은 원인과 결과 각각이 서로의 변화를 야기하는 상관적 관계에 있다는 명제가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송원섭이 '상관적 반응 기반의 환경결정론'이란 표현에서 사용한 '환경결정론'에 대한 개념상 오해를 막기 위해 '상관적 반응 기반의 인간-환경론'으로 수정해 사용했다.
 - 16) 구체적으로 예시하면, 초등 「사회 6-2」에서는 각 기후의 특징을 기후그래프 없이 간략하게 학습하고 각 기후의 분포 지도 역시 간략한 세계지도 상의 분포를 통해 학습한다. 반면 중학교 「사회 1」에서는 열대우림 기후, 지중해성 기후와 서안해양성 기후, 건조 기후와 툰드라 기후가 각각 중단원의

- 로 편제되고, 각 기후유형 구분의 기준이 되는 기온과 강수 특징, 기후그래프, 위도가 표시된 기후분포도 등을 학습한다. 고등학교 「세계지리」 역시 열대 기후, 온대 기후, 건조 기후와 냉·한대 기후가 각각 중단원으로 편제되고, 1차 기후 유형에서 2차 기후 유형 구분까지 상세하게 학습할뿐만 아니라 각 기후 유형이 발생하는 기후 메커니즘까지 학습한다.
- 17) 이 책은 1960~70년대에 문화지리학자 Philip L. Wagner가 책임 편집을 맡아 출판한 'Prentice-Hall Foundations of Cultural Geography Series'라는 문화지리학 학술총서(총 11권) 중 대표작으로 꼽힌다. 일례로 Ford(1984:12)는 이 책이 문화지리학에서 건축/주택 연구분야를 확장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한다.
 - 18) 비달은 고장(pays) 안에서 사람과 땅의 관계를 보면, 생활양식이 기후, 토양, 지형 같은 엄연한 사실로서의 자연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역을 규정하는 자연적 속성을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사람들이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생활양식이라고 주장한다. 즉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자연의 날것 그대로의 요구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진 생활양식 때문이라고 설명한다(Cresswell, 2024, 박경환 등 역, 2024: 102).
 - 19) 사우어학파가 북미의 농가 중에서도 농가 부속물이라 할 수 있는 헛간이나 창고 같은 구조물에 주목했던 이유도, 헛간은 유행을 잘 타지 않는 가장 보수적인 건축물이라 유행과 무관한 지리적 요인을 잘 반영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Horton and Kraftl, 2014, 김수정·박경환 역, 2025:122).
 - 20) 「주택의 형태와 문화」가 출판된 1969년은 전세계적으로 산업화와 도시화가 이루어진 시기였지만, 저자는 의도적으로 현대 주택이 아닌 원시적 주택이나 전(前)산업시대의 토속적 주택 같은 전통 주택을 연구대상으로 선택했고, 그 이유를 현대 주택에 비해 전통 주택에 대한 자연적 제약이 매우 강해서 주택 형태의 결정 요소로서 자연의 힘과 문화의 힘의 상대적 비중을 보다 잘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Rapoport, 1969, 송보영·최형식 역, 1990:21).
 - 21) 중학교 「사회 1」 교과서(구정화 등, 2018:37)에는 도심 건물들 사이를 걷는 시민들이 자주 내리는 비를 피하면서 보행할 수 있도록, 빌딩 처마를 인도까지 길게 내어 일종의 회랑을 구성하는 건축양식이 열대기후 지역의 인간생활 사례로 제시되어 있다.
 - 22) 2005년 우리나라 「건축법」의 제정 목적이 개정되었는데, 제1조(목적)에 '환경' 항목이 포함되어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로 개정되었다. 또한 2010년 제정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2012년 제정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은 "제1조(목적)... 건축물 온실 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 23) 예를 들어 영국 옥스퍼드대 출판사에서 낸 Key Stage3 지리 교과서 geog1(2019), geog2(2020), geog3(2021)도 건축이 독자적인 학습주제로 편제되어 있지 않다.
 - 24) <https://www.birmingham.ac.uk/staff/profiles/gees/kraftl-peter>
 - 25) <https://www.northampton.ac.uk/directories/people/john-horton/>.
 - 26) Lee(2015)는 사우어학파를 기준으로 건축 지리학의 계보를 정리하여 '포스트-사우어(post-Sauerian) 건축 지리학'이란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 27) 2015 교육과정 「한국지리」 대단원 'Ⅲ. 기후 환경과 인간 생활'의 탐구활동 자료로 '기온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라는 주제로 지역별 다양한 가옥구조가 나타나는 원인을 기후와 관련 짓는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신정엽 등, 2018:77).
 - 28) 팀 크레스웰의 「지리사상사」(Cresswell, 2024, 박경환 등 역, 2024:124-125) '제4장 지역에 대한 사고'에서 지리학에서의 지역에 대한 사고의 최신 흐름으로 케네스 프래프턴의 '비판적 지역주의'를 소개하고 있을 만큼, 그의 '비판적 지역주의'는 지구화의 흐름 속에서도 간과될 수 없는 지역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있다.
 - 29)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건축 및 도시 설계 스튜디오 MVRDV 소속 이교석 건축가의 특강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건축"(2025년 4월

- 18일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주최)에서의 강연 내용.
- 30) Yeang(2015:viii)에 따르면 현재 사용되는 비재생 에너지의 약 50%가 건물의 건설·운영·해체·재활용 과정에 소비되며, 건물은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이다.
- 31) 실제로 기후응답형 건축가 켄 양(Ken Yeang)은 「가디언 The Guardian」에서 “지구를 구할 수 있는 50인”중 한 명으로 선정되었다(Yeang, 2015: viii).
- 32) 각주 29)와 같은 출처.
- 33) 용적률과 건폐율이 도시 밀도 및 도시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김성홍(2020)을, 그리고 입면적과 차폐도가 도시경관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과 규제 효과에 대해서는 정석(2013:27-39)을 참고할 수 있다.

감사의 글

본 연구를 위해 건축학에 관한 자문을 해주신 서울대 건축학과 강예린 교수님, 지리교육에서의 건축 관련 학습에 대한 자문을 해주신 서울 동작고 김현주 선생님과 경기 이천고 이해란 선생님, 그리고 연구보조원으로 긴 시간 도움을 준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대학원 김세창, 김수경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 교육부, 2015, 사회과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7]).
- 교육부, 2022, 사회과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7]).
- 구정화·변순용·장준현·김재준·황병삼·최준화·황지숙·박상재·엄정훈·한보라, 2018, 「통합사회」, 천재교육.
- 구정화·한진수·정필운·설규주·장준현·정석민·박정애·엄정훈·허은경·김동환·김민수·웅진환, 2018, 「중학교 사회 1」, 천재교육.
- 김성홍, 2020, 「서울해법: 블랙홀 서울, 땅과 건축에 관한 새로운 접근법」, 현암사.
- 김세영, 2013, “현대 건축에서 나타난 지역성의 지속 가능

- 한 가치에 관한 연구 -알바 알토 건축을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2(5), 126-134.
- 김영호·이수영·박선영·신재륜·임창민·이준구, 2025, 「도시의 미래 탐구」, 천재교육.
- 김태웅, 1995, “지속가능한 건축을 위한 체계적 접근 -환경 건축을 중심으로” 건축사, 8, 90-94.
- 남해경, 2017, “고도보존지구의 빈집 변화추이와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전라북도 금마고도보존지구 중심으로,”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19(2), 25-33.
- 류재명, 1998, “지리교육내용의 계열적 조직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6(2), 1-18.
- 송원섭, 2015, “경관지리학에서 경치지리학으로: 영미권 문화역사지리학 경관연구 패러다임의 전환,” 대한지리학회지, 50(3), 305-323.
- 송원섭, 2023, “문화지리교육에서 환경결정론 교육내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대한지리학회지, 58(3), 330-343.
- 신정엽·김명철·김봉식·김영화·양희경·유상철·이경희·최재영·홍석민, 2018, 「한국지리」, 천재교과서.
- 신정엽·이정식·이경희·양희경·김봉수·유상철·박재현·박천영·박철진, 2019, 「세계지리」, 천재교과서.
- 심승희, 2019, “도시 경관과 건축,” 한국도시지리학회 편, 「도시지리학개론」, 법문사, 513-574.
- 유현준, 2020, 「공간이 만든 공간: 새로운 생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을유문화사.
- 이시원·유지원·주범, 2022, “서울시 소규모 재건축 사례 분석 -빈집 및 소규모 재건축에 관한 특별법 개정 후의 공동주택 사례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42(2), 887-890.
- 이시호, 2007, 찰스 포레아 건축의 거주 가능성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영민·최재희·임영신·김수정·원요한·이진, 2025, 「여행지리」, 천재교과서.
- 이종원, 2024, “지리적 사고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가?”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32(4), 77-91.
- 임우진, 2022, 「보이지 않는 도시」, 을유문화사.
- 정기용, 2008, 「감응의 건축- 정기용의 무주 프로젝트」, 현실문화.
- 정석, 2013, 「나는 튀는 도시보다 참한 도시가 좋다: 정석 교수의 도시설계이야기」, 효형출판.
- 조대현·교예윤·김태호·박다미·이영재·이호문, 2025, 「한

- 국지리 탐구』, 천재교육.
- 조성호·이강준·홍철희·박성계·백승진·신준, 2022, 「여남 지리」, 씨마스.
- 최윤경, 2003, 「7개 키워드로 읽는 사회와 건축공간」, 스페 이스타임.
- 현소영·이승호·정현승·정미수·박근선·전재수·최경일·김병윤·김도원, 2018,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모형 개발” 적정 기술학회지, 4(1), 26-35.
- Baek, J., 2016, *Architecture as the Ethics of Climate*, Routledge(김한영 역, 2023, 「건축과 기후윤리」, 이유 출판).
- Cresswell, T., 2024, *Geographic Thought: A Critical Introduction*, 2nd, Wiley Blackwell(박경환·류연택·심승희·정현주·서태동 역, 2024(2판), 「지리사상사」, 시그마프레스).
- Dove, J., 2001, Using architecture to explore urban development, *Teaching Geography*, 26(3), 134-138.
- Ford, L.R., 1984, Architecture and geography: Toward a mutual concern for space and place, *Association of Pacific Coast Geographers Yearbook*, 46, 7-33.
- Foster, H., ed., 1983, *The Anti-Aesthetic: Essays on Postmodern Culture*, Pluto Press, 16-30(윤호병 역, 1993, “비평적 지역주의에 대하여: 저항의 건축을 위한 6가지 요점” 할 포스터 편저, 윤호병 등 역, 「반미학: 포스트 모던 문화론」, 현대미술사, 45-65).
- Frampton, K., 1983, Towards a critical regionalism: Six points for an architecture of resistance, in Foster, H., eds., *The Anti-Aesthetic: Essays on Postmodern Culture*, Pluto Press, 16-30.
- Gallagher, R. and Parish R., 2020(5th), *Geog. 2*, Oxford University Press.
- Gallagher, R. and Parish R., 2021(5th), *Geog. 3*, Oxford University Press.
- Gallagher, R., Parish R., and Williamson J., 2019(5th), *Geog. 1*, Oxford University Press.
- Gissen, D., 2008, Architecture's geographic turns, *Log*, 12, 59-67.
- Goss, J., 1988, The built environment and social theory: Towards an architectural geography, *Professional Geographer*, 40(4), 392-403.
- Horton J. and Kraftl, P., 2014, *Cultural Geographies: An Introduction*, Routledge
- Horton J. and Kraftl, P., 2014, *Cultural Geographies: An Introduction*, Routledge(김수정·박경환 역, 2025, 「문화지리학개론」, 사회평론아카데미).
- Horton, J., Hadfield-Hill, S., and Kraftl, P., 2015, Children living with 'sustainable' urban architectures, *Environment and Planning A*, 47(4), 903-921.
- Jacobs, J., 2006, A geography of big things, *Cultural Geographies*, 13, 1-27.
- Jordan, T.G., Domosh, M., and Rowntree, L., 1997(7th), *The Human Mosaic: a Thematic Introduction to Cultural Geography*, Longman.
- King, A. D., 1990, *Urbanism, Colonialism, and the World Economy: Cultural and Spatial Foundation of the World Urban System*, Routledge(이무용 역, 1999, 「도시문화와 세계체제: 문화, 공간, 역사로 읽는 세계 도시체제」, 시각과언어).
- Kraftl P., 2010, Geographies of architecture: The multiple lives of buildings, *Geography Compass*, 4(5), 402-415.
- Kraftl, P. and Adey, P., 2008, Architecture/affect/inhabitation,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98(1), 213-231.
- Kraftl, P., 2011, Utopian promise or burdensome responsibility? A critical analysis of the UK government's building schools for the future policy, *Antipode*, 44(3), 847-870.
- Lee, Jae-Youl, 2015, Symbolic urban architecture, controversy, and ordinary practices: A critical architectural geographic narrative of Nodeuleeom in Seoul,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8(3), 171-182.
- Lees, L., 2001, Towards a critical geography of architecture: The case of an ersatz colosseum, *Ecumene*, 8(1), 51-86.
- Rapoport, A., 1969, *House Form and Culture*, Prentice-Hall (송보영·최형식 역, 1985, 「주택의 형태와 문화」, 태림문화사).
- Relph, E., 1976, *Place and Placelessness*, Pion Ltd.(김덕현·김현주·심승희 역, 2005,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 Straight, S. and Mustoe, M., 1996, Temporary buildings: Where are they Going, Where have they been?, *Journal of Geography*, 95(2), 73-80.

Tuan, Yi-Fu, 1977, *Space and Place: the Perspective of Exper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구동희·심승희 역, 1995, 「공간과 장소」, 대운).

Warf, B. ed., 2010, *Encyclopedia of Human Geography*, vol.1, Thousand Oaks, Calif: SAGE.

Yeang, K., 2015, From bioclimatic design to eco design, in Olgyay, V., Lyndon, D., Reynolds, J., and Yeang, K., eds., *Design with Climate: Bioclimatic Approach to Architectural Regionalism* – New and expanded edi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vii-viii.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미국 건축학 교육인증기관, https://soa.syr.edu/school/naab-accreditation/?utm_source, 2025년 7월 29일 검색.

Architects' Journal, 12 March, 2024, “Architects have ‘196 times’ more power to cut carbon through work than lifestyles”

Encyclopædia Britannica, <https://www.britannica.com/topic/architecture>, 2025년 7월 29일 검색.

교신 : 심승희,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이메일: geossh@snu.ac.kr)

Correspondence: Seung Hee Shim, 08826, 1 Gwanak-ro, Gwanakgu, Seoul, South Korea,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Email: geossh@snu.ac.kr)

투고접수일: 2025년 8월 20일

심사완료일: 2025년 9월 10일

게재확정일: 2025년 9월 17일